

코로나19 이후 국제 분업구조 재편과 우리산업의 경쟁전략



Global Market Report

목 차

요 약

I. 서론

- 1 | 1. 연구배경
- 2 | 2. 연구 목적 및 범위

II. 한국의 교역 및 GVC 구조 분석

- 3 | 1.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교역동향
- 7 | 2. GVC 구조 변화와 경쟁력 분석
- 16 | 3. GVC 구조 재편 방향

III. GVC 재편과 주요국 산업정책

- 19 | 1. 주력시장: 미국, 중국, EU, 일본
- 34 | 2. 주요 신흥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IV. 해외 현지법인의 GVC 재편과 대응 설문결과

- 55 | 1. 해외 현지법인 현황과 구조
- 58 | 2. 해외 현지 사업의 구조 변화와 대응
- 67 | 3. 코로나19사태의 현지법인 영향과 대응

V. 결론

- 71 | 1. 핵심 산업의 협력 가능성
- 75 | 2. 해외 산업정책에 기초한 협력가능성

요 약

- **(GVC 전망)** 코로나19 사태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 주요 산업의 공급차질과 수요절벽으로 인해 글로벌 교역을 대폭 위축됨과 동시에 글로벌 산업 구조 재편이 가속화 될 전망
- **(연구 목적)**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교역 동향과 국제 산업연관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산업별 가치사슬 변화 등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산업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전략 방안 도출 필요
 -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수습한 중국 제외 대부분의 주요 경제권에서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 가운데 한국의 수출은 강한 회복탄력성을 보임
- **(분석 결과)** 한국의 산업별 대외경쟁력 변화 분석 결과, 우리 제조업의 산업 구조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심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변화가 뚜렷
 - 2020년 대비 2019년 전자 및 광학기기와 운송기기 등의 산업에서 수출경쟁력이 뚜렷하게 증가
 - 반면, 2019년에 전반적인 산업 편중도가 심화되었고, GVC 구조에 따라 총량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경쟁력의 격차가 발생하는 산업도 존재
- **(GVC 재편 방향)** GVC 구조 재편의 주요방향은 ①GVC를 활용한 생산 구조의 축소와 수요지역에 근접한 생산단계 구축, ②공급체인 단위의 다양화, ③디지털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
 - GVC 방식 생산비중의 전 세계적 정체, 中 인건비 상승과 동남아 관심도 증가 → 수요지역에 근접한 니어쇼어(Near-Shore)현상이 확대될 것
 -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공급망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 할 것
- **(미래 핵심 산업)** 주요국의 산업 정책의 핵심적 내용은 ‘미래산업의 핵심 역량 강화’, 주로 ICT 산업, 바이오 및 의료, 친환경 에너지 등이 선정됨
- **(신흥국 산업 정책)** 신재생에너지와 로봇 등 미래산업 육성과 동시에 현재 자국 주력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됨
- **(진출 전략)** 개별 산업의 현재 상황에 맞는 협력 방향을 설정하며, 현재 우리의 산업별 경쟁력과 GVC 재편 방향을 동시에 고려할 것

I

서론

1

연구배경

- 코로나19 사태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 주요 산업의 공급차질과 수요절벽으로 인한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 될 전망
 -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국제 분업구조를 기반으로 가치사슬이 구성된 주요 산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조업 중단과 중간재 조달 차질로 생산 및 수출에 충격이 발생
 -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수요 절벽과 공급차질 두 요소는 취약 산업의 붕괴 등으로 글로벌 산업의 구조개편을 가속화할 것
- 글로벌 교역도 금융위기 이후의 장기 정체를 탈피, 최근 몇 년간 회복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사태는 이를 대폭 위축 시킬 것
 - 4차 산업혁명 등 IT기술의 확산으로 반도체 수출은 크게 확대된 반면, 자동차·조선·철강 등 전통산업의 수출은 경쟁력이 점차 약화
 - 한편, 해외생산 확대로 국내 생산이 위축되면서 산업구조 조정 및 수출경쟁력 구조의 변화가 가시화됨
- 미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 자국 내 생산 강화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표방,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가치사슬 변화의 가속화
 - △미·중 무역 분쟁 등 전세계적 보호주의의 심화와 함께 △中 산업 구조 고도화로 인한 가공무역 축소, △신남방 지역의 부상에 따른 국제분업구조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
 - △독일 인더스트리 4.0, △미국 첨단제조 파트너십, △중국제조 2025는 물론 △아세안의 저임금 기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산업정책과 투자제도를 마련

2

연구 목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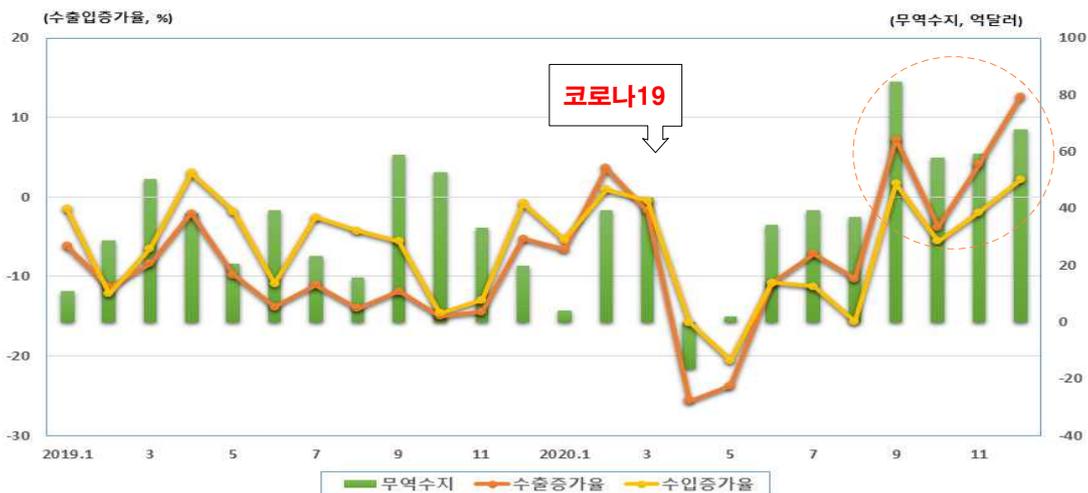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1)한국의 교역 동향과 (2)국제 산업연관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산업별 가치사슬 변화 등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전략 방안 도출
 - 국제산업연관표 등을 활용, ①한국이 결합된 가치사슬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②교역 통계에 기반한 RCA지수 등 기존의 대외경쟁력 지표와 GVC 방식의 지표를 도출→ 경쟁력의 변화를 비교 분석
 -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경쟁력을 분석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의 산업정책을 비교 분석, 한국과 해당 교역국간 경제협력 방안 제시
- 우리나라의 수출 주요 수출대상국 및 주요 신흥국의 산업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시도
 - 무역통계를 기반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국을 선별하되 단순 순위가 아닌 교역 품목까지 고려한 주요 교역상대국 선정
 - 선정된 주요 국가의 산업정책을 조사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새롭게 제시된 정책을 중심으로 조사
 - 조사된 산업정책과 우리 산업의 진출 현황 및 해당 국가 내에서의 경쟁력 구조를 파악하여 향후 진출 방안 및 협력 가능성 분석
- 보호무역주의 및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속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을 둘러싼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현지법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시사점 도출
 - 주요 대외환경 변화가 우리 기업 및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변화 전망 조사

II 한국의 교역 및 GVC 구조 분석

1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교역 구조

- 글로벌 교역은 금융위기 이후의 장기 정체에서 벗어나 회복 추세, 한편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음
- 우리나라 수출도 2017년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하였으나 전반적인 개선 정도는 아직 약한 수준에 머무르다 반도체 경기 하락으로 2019년에는 지속적인 감소세로 전환
- 2020년 초 △중국의 경기회복과 미중분쟁 타결, △반도체 단가 상승 등으로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되는 듯 했으나,
- 해당 시기에 코로나19 사태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됐고, 2020년 3분기 말 이후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됨
-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전세계 교역이 전반적으로 감소,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제 상황 및 교역도 부진한 상황이나,
- 한국 수출 교역은 부정적인 영향이 단기에 그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임

<최근 무역 증가율 및 무역수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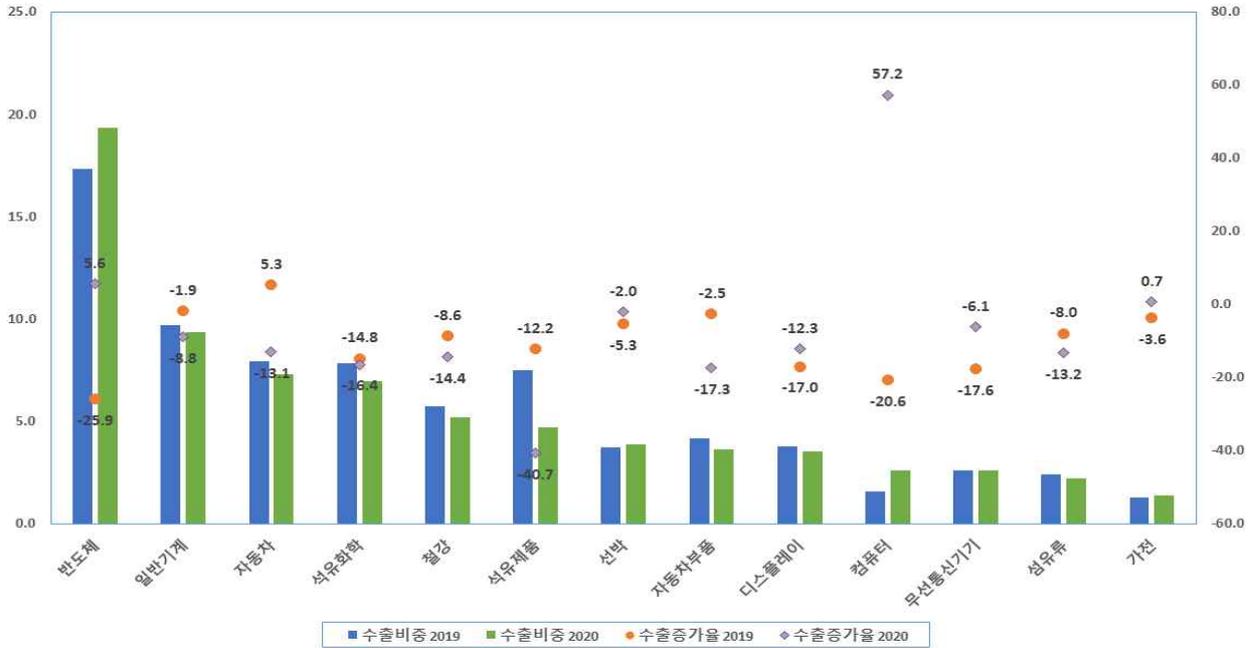


[자료원] 무역협회 무역통계(2021.1)

-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수습한 중국과 홍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요 경제권에서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감소. 한편, 한국은 2020년 수출이 -6.4% 감소하는데 그치며 강한 회복탄력성을 보임
 -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오히려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고, 이는 2020년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
 -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SSD 등 IT관련 품목의 수출 증가를 견인, K-방역의 성과로 코로나19 진단기기 등 신규 수출 품목의 비중 증가
- 2019년 대비, 코로나19 이후 주력 수출 산업의 수출 성과는 반도체·컴퓨터·가전 등 ICT 품목이 주로 증가세, 2020년 4분기 전후로 자동차·자동차부품과 일반기계가 회복세
 - 반도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간 부진했으나 주요 글로벌 IT기업들의 서버 투자 증가로 인한 수출 물량 증가와 스마트폰 출하량 회복에 따른 모바일 수요 증가로 수출 비중도 증가
 - 대형 서버 업체들의 재고 누적으로 컴퓨터 수요 진정됐으나,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와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 증가와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홈코노미 산업 확대로 SSD 등 주요 전자제품 품목의 수출 대폭 증가
 - 코로나19 이후, TV시장의 스마트·초대형·초고화질 트렌드화와 중국내 소비 진작 효과로 인한 가전제품 판매 호조→수출 증가
 -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SUV 및 친환경차 수출단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망 위축으로 감소세가 컸으나, 일부 지역에서 2020년 말로 갈수록 경제활동 회복으로 수출 회복세

<주요 산업의 수출 증가율 및 비중>

(단위 : %)



[자료원] 무역협회 무역통계(2021.1)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와 봉쇄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 사태 조기 종식으로 對中 수출은 회복세며 對美 수출은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
- 對中 수출은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생산 중단 및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급감하다 조기종식으로 회복세로 전환하여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중국 경기 회복으로 증가세 지속
- 미국과 對아세안 수출도 1분기 증가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4월 이후 수출이 급감하다가 미국은 2분기부터 회복세로 전환하였고 아세안은 베트남이 감소세 축소 이후 증가
- 對EU 수출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두 자릿수 이상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다, 점진적 회복세로 수출의 소폭 감소에 그쳤고, 일본 및 중동에 대한 수출은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의 감소세 지속
- 對중남미 수출은 코로나 사태의 확산 지속으로 인해 조업 중단과 신규 투자프로젝트 연기 등으로 인해 두 자릿수 이상 대폭 감소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

(단위 : %)



[자료원] 무역협회 무역통계(2021.1)

2 | GVC 구조 변화와 경쟁력 분석

1. 글로벌 생산구조 변화 추이¹⁾

- ‘글로벌 가치사슬(GVC)’는 연구개발에서 생산 및 판매 후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각 경제주체가 지닌 비즈니스 기능의 비교우위*에 근거하여 전 세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기능을 배분한 구조를 의미
 - * 여기서 각 경제주체의 비교우위는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이론 등에서 의미하는 한 국가 또는 국가내의 산업간 비교우위보다는 ‘생산과정의 특정한 비즈니스 기능(Task)을 가진 경제주체(주로 기업)의 비교우위’를 의미
- Wang 외(2017)는 글로벌 경제의 생산방식을 GVC구조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생산방식으로 구분하는 분해법(Decomposition Method)를 제시하였음
 -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①순수하게 국내적 자원을 통해 생산하는지와 ②국경을 넘나들면서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국경을 몇 번을 넘나들면서 생산하는지로 방식을 세분

<네 가지 생산방식의 분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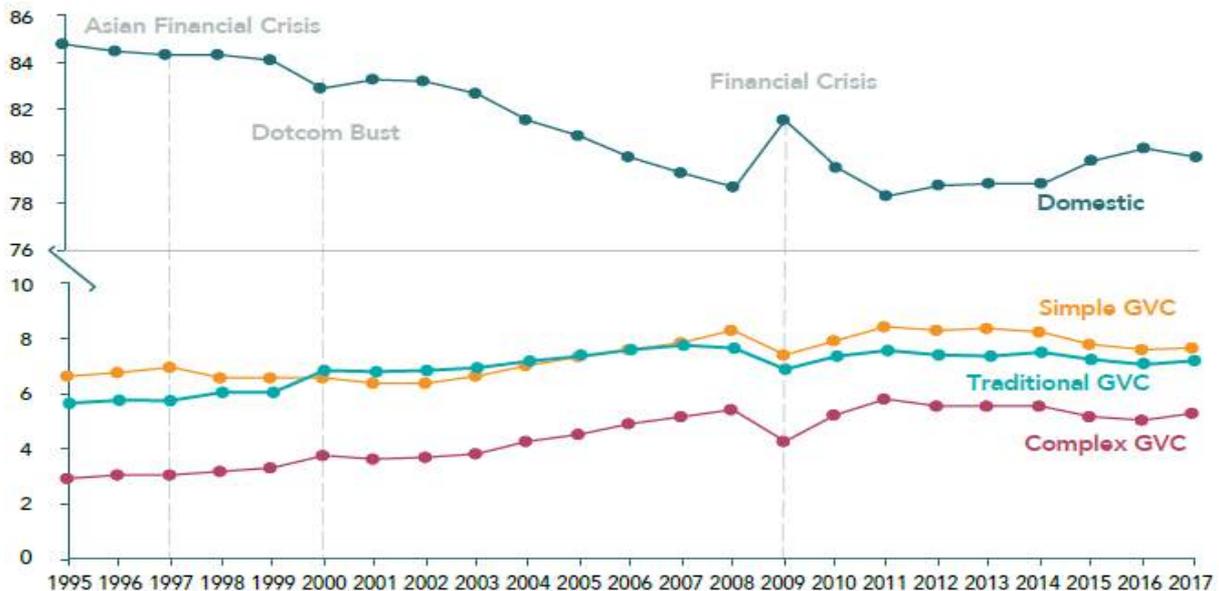
- 1) 순수 국내부가치 생산(Pure domestic value-added production)은 온전히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생산되고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방식
ex) 국내산 농산물의 국내소비, 보건의료와 같은 자국내 생산과 소비를 의미
- 2) 전통적 무역 생산(Traditional trade production)은 일반적인 무역거래 개념으로 오직 하나의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이 다른 한 국가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방식
ex) 한국산 농산물의 중국 소비 등
- 3) 단순 GVC 생산(Simple GVC)은 가치사슬을 따라 두 국가에서의 생산 분업을 통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생산방식
ex) 중국산 쌀을 국내 수입하고 가공 식품을 만들어 생산하여 수출
- 4) 복합 GVC(Complex GVC)는 가치사슬을 따라 세 국가 이상에서의 분업생산으로 제품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생산방식
ex) 한국의 반도체, 대만의 하드디스크 등을 중국 공장에서 조립·생산하여 수출

1) GVC 생산방식의 개념 설명 및 주요 분석 방법론은 김재덕 외(2018)을 재정리 한 내용이며 최근 자료를 반영하여 새로 분석함

-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순수 국내생산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비중이 1995년 85%에서 꾸준히 감소.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소폭 증가. 2010년 80%이하에서 정체하다 이후 소폭 증가한 반면 교역과 GVC를 통한 생산비중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다 최근 감소함
 - 2007년부터 GVC 참여도는 13%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금융위기인 2009년 12%로 하락하였고 2016년 이후의 완만한 상승 추이가 특징
 - 이는 전 세계적으로 GVC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시사. 동 기간 동안 수출의 비중이 증가되었는데 이 중에서 복잡한 유형의 GVC 비중이 가장 빠르게 확대된 것을 확인
- 세계 교역과 GVC 방식의 생산이 정체된 이유는 ‘중국의 글로벌 분업구조의 최적화’가 성숙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간재 교역의 감소와 함께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및 △자국 산업 육성 정책 수립 추세 有

<전세계 GDP의 생산방식별 분해>

(단위 : %)



[자료원] World Bank(2019)에서 재인용(2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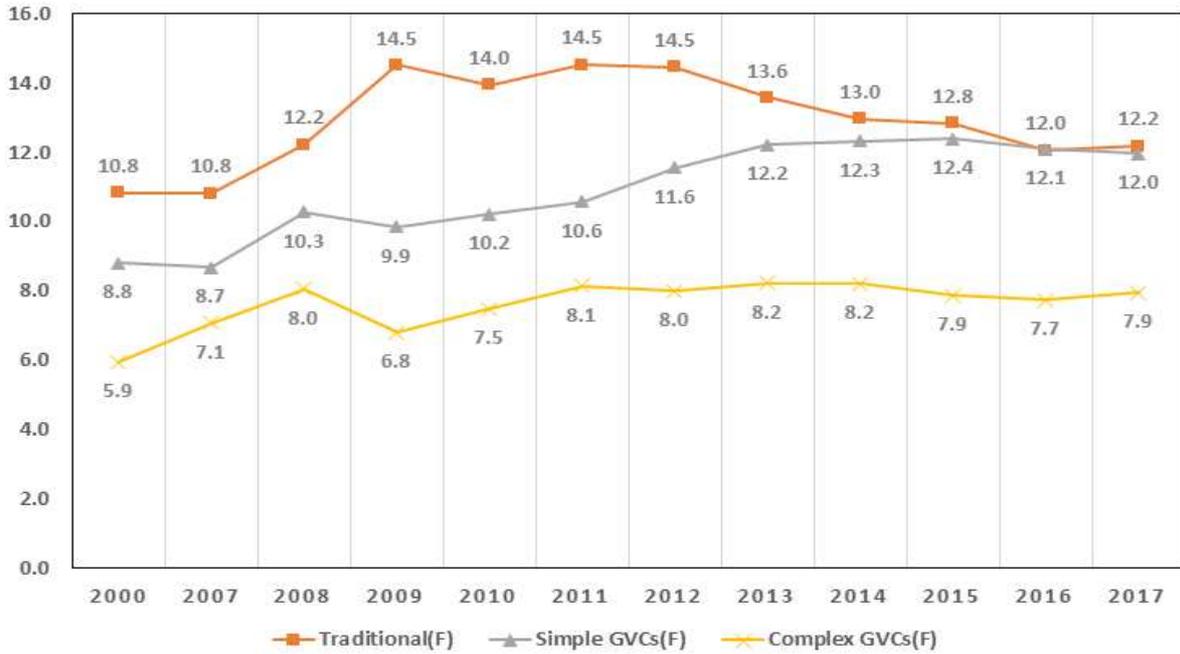
2. 한국의 GVC 구조 및 주요 제조업 경쟁력 분석

가. 한국의 GVC 구조 생산방식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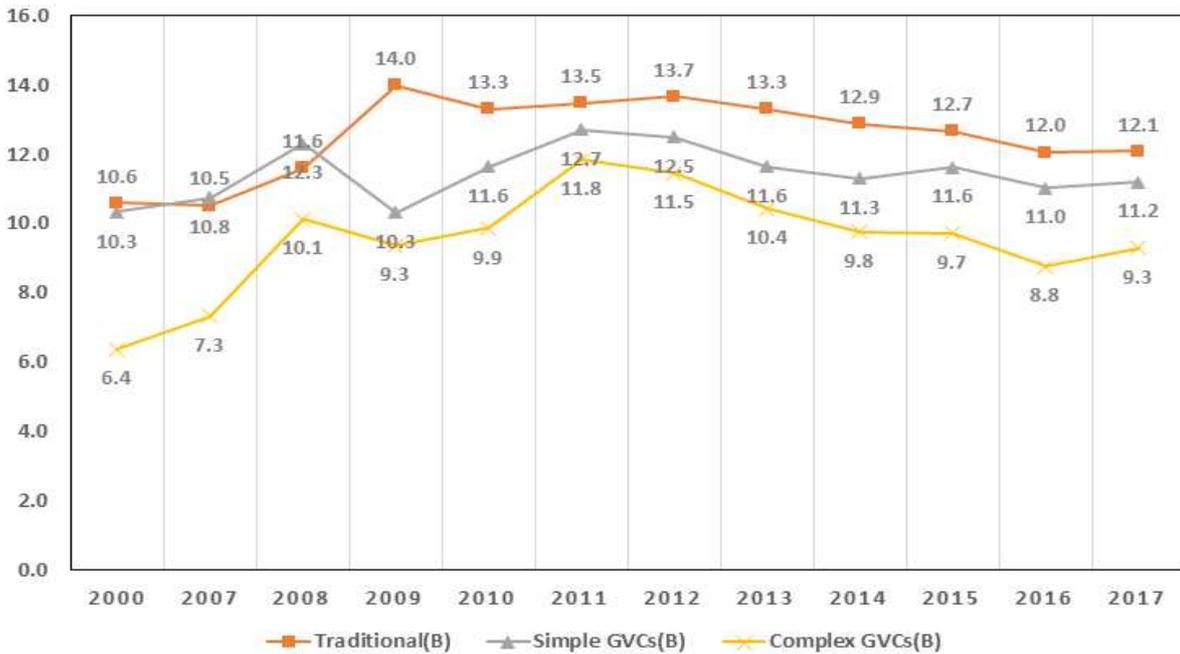
- 한국의 GVC 생산방식을 Wang 외(2017)의 방법에 따라 분해한 결과는 전방연계와 후방연계 모두 2000년 이후 국내생산이 소폭 감소하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한 것을 확인
 - 전통적인 무역방식의 생산은 2000년 전방연계는 10.8%, 후방연계는 10.6%로 비슷했으나 전방연계는 2011~2012년 14.5%로 정점 이후 감소했고, 후방연계는 이보다 빠른 2009년 14.0% 이후 꾸준히 감소
 - 국경을 두 번 거치는 단순GVC 방식의 생산은 전방연계는 분석 기간 내 꾸준히 증가 추세(2000년 8.8% → 2017년 12.0%)를 보인 반면, 후방연계 방식은 소폭 증가하다 감소
 - 국경을 두 번 초과하여 여러 국가에 걸쳐서 생산하는 복합 GVC 방식의 경우 전방연계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변화는 없는 반면 후방연계는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임
- 이러한 결과는 한국 경제의 생산방식에 순수 국내기여를 통한 생산부문은 크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 교역구조와 GVC 참여도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
 - 우선 전방연계 방식의 교역, 즉 한국의 산업부문이 외국의 생산에 기여하는 방식이 최종재 중심의 완제품 수출은 감소, 조립단계가 복잡하지 않은 생산품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의미
 - 후방연계 방식에서는 우리의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 외국의 기여도가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앞서 언급한 GVC의 성숙화 움직임이 확인된 것으로 유추

<한국의 GVC 생산방식별 GDP분해>

가. 전방연계방식(Foward Linkage)



나. 후방연계방식(Backward Linkage)



[자료원] ADB MRIO이용 저자작성(2021.1)

나. 한국의 GVC 구조 반영 제조업 경쟁력 분석

- 글로벌 분업구조 하에서 무역을 통관기준의 총량(Gross) 수치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파악한다면, 한 국가나 한 산업의 부가가치가 다른 산업의 수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된다는 점을 간과하게 됨
 - 총량기준의 수출에서는 이중 계산된(Double Counting) 가치가 포함되어 수출량이 과다 계상되어 경쟁력이 과대평가할 위험 존재
 - 한편, 한 산업의 부가가치가 다른 산업의 수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된다는 점을 간과하게 되며, 이러한 누락은 해당 산업의 비교우위를 과소평가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서 해당 산업의 실질적인 대외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무역량(Trade in Value Added)을 도출하여 경쟁력지수를 도출해야 함
- 국제무역에서 개별 국가나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는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를 활용하되, GVC구조를 반영한 새로운 경쟁력 지수도 도출하여 비교 분석을 시도
 - 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이하 RCA)는 수출시장에서 특정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품목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사이의 비율을 의미

$$RCA = \frac{X_{ij}/X_i}{X_j/X}$$

(X_{ij} : i 국의 j 품목 수출, X_i : i 국 총수출, X_j : j 품목 총수출, X : 세계총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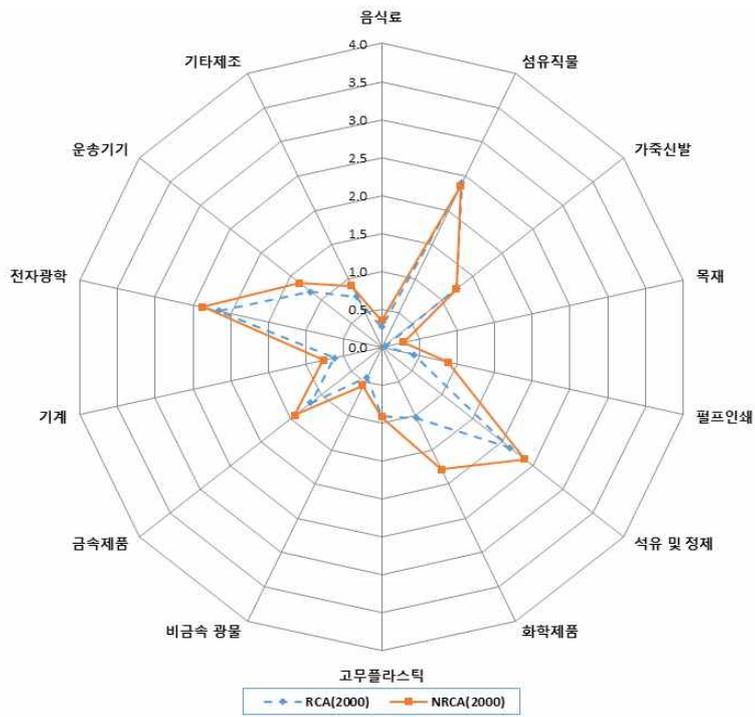
- 이 지수는 특정 품목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데 널리 쓰이며,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 산업으로 해당 품목의 경쟁력이 높아 전 세계 평균보다 많이 팔린다는 것을 의미함

- 교역량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무역량으로 다시 계산하여 New RCA 지수를 도출하여 비교 분석을 시도함²⁾
-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이(ADB)가 발표한 국제산업연관표(MRIO)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 제조업에 대해 글로벌 가치사슬 기준의 대외경쟁력 지표 분석
- 한국의 산업별 대외경쟁력 변화를 2000년과 2019년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 제조업의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심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변화를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음
 - 우선 2000년을 기준으로 수출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은 7개로 섬유·직물, 가죽·신발, 석유·정제, 화학, 금속·금속제품, 전자 및 광학기기, 그리고 운송기기임
 - 2000년을 기준, 화학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RCA와 NRCA의 수치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당시에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따른 국제 분업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기준으로 수출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은 석유 및 정제, 화학, 금속 및 금속제품, 기계, 전자 및 광학기기, 운송기기 등 6개 산업임
 - 2000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전자 및 광학기기와 운송기기 등의 산업에서 수출경쟁력이 뚜렷하게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 산업의 편중도가 심화됨
 - 섬유 및 직물과 가죽 산업이 RCA 기준의 수출경쟁력이 1보다 낮아졌고, 특히 섬유산업의 경우 2.4수준에서 1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기계 산업은 2019년에 1보다 큰 값으로 경쟁력을 가짐
 - 또한, 2019년 NRCA기준 수출경쟁력이 뚜렷이 상승한 산업은 전자 및 광학기기와 기계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따라 중간재 교역이 많은 산업이며 RCA와 NRCA의 차이도 벌어짐
 - 특징적으로 한국이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석유 및 정제산업의 경우 2000년은 NRCA가 RCA보다 컸지만 2019년에는 역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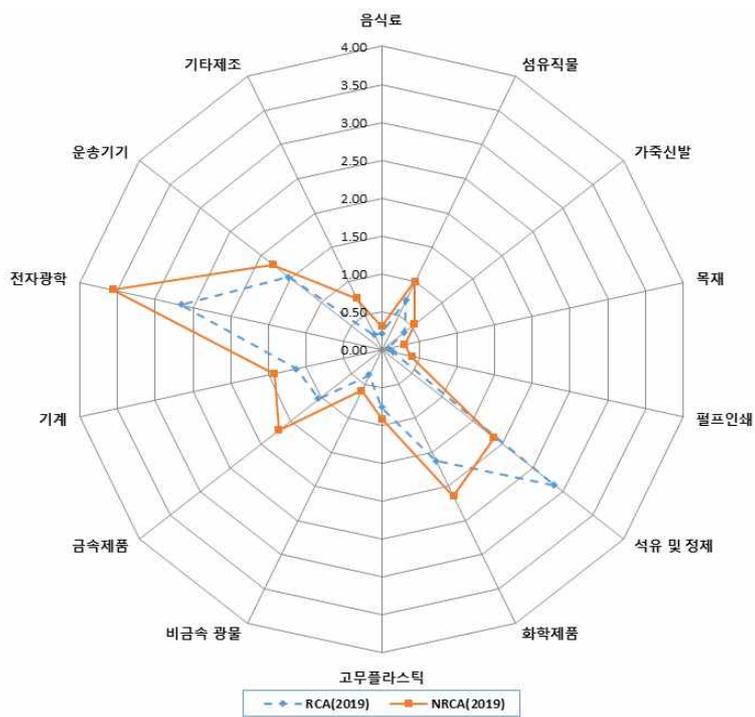
2) 부가가치 기준 무역량 계산과 New RCA지수 도출방법은 김재덕 외(2014), Wang, Wei and Zhu (2013) 등 참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산업별 대외경쟁력 변화(RCA vs New RCA)>

가. 2000년



나. 2019년



[자료원] ADB MRIO이용 저자작성 (2021.1)

- 현시비교우위의 고착화 현상이 강화되는 산업
 - 수출경쟁력을 보유한(1 보다 큰 RCA와 NRCA를 갖는) 산업 중에서 기계, 전자광학, 운송기기는 2000년 대비 2019년에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RCA와 NRCA 값이 증가) 나타남
 - 반도체를 포함하는 전자광학 산업과 자동차를 포함하는 운송기기 산업 그리고 기계 산업의 RCA와 NRCA는 2000년 대비 크게 상승
 - 반면, 2000년 기준으로 수출경쟁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1보다 작은 RCA와 NRCA를 갖는)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2019년 더욱 약화
 - 식음료, 가죽, 제지, 플라스틱, 비철금속, 기타제조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은 2000년과 2019년 사이 추세적으로 약화
- 수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는 산업
 - 정유산업의 2000년과 2019년에 수출경쟁력을(RCA와 NRCA 모두)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나 수출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 무역에서 경쟁력은 급격하게 낮아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전통무역과 부가가치 무역에서 경쟁력 변화가 차별화되는 산업
 - 섬유산업은 RCA와 NRCA 모두에서 추세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부가가치 무역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섬유산업은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화학 산업은 RCA 기준으로는 경쟁력이 강화되는 경향을 NRCA 기준으로는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로 수출확대의 많은 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부가가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의 주요 제조업 경쟁력 지수 추이 >

가. 전통적인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산업 \ 년도	2000	2007	2010	2015	2019
음식료	0.27	0.19	0.23	0.23	0.21
섬유직물	2.40	0.99	0.93	0.91	0.73
가죽신발	1.25	0.42	0.45	0.53	0.38
목재	0.05	0.02	0.04	0.09	0.09
펄프인쇄	0.43	0.35	0.37	0.40	0.16
석유 및 정제	2.12	1.60	1.71	1.91	2.86
화학	1.04	1.16	1.25	1.40	1.62
고무플라스틱	0.91	0.66	0.70	0.68	0.76
비철금속	0.44	0.36	0.32	0.40	0.37
철강금속	1.18	1.05	1.25	1.17	1.04
기계	0.63	0.83	1.01	1.05	1.13
전자광학	2.16	2.39	2.42	2.30	2.66
운송기기	1.17	1.84	2.27	1.92	1.54
기타제조	0.74	0.15	0.14	0.15	0.22

나. GVC 구조 반영 현시비교우위지수(New RCA)

산업 \ 년도	2000	2007	2010	2015	2019
음식료	0.35	0.27	0.32	0.34	0.31
섬유직물	2.36	1.11	1.26	1.25	1.00
가죽신발	1.23	0.49	0.60	0.73	0.54
목재	0.29	0.22	0.29	0.27	0.31
펄프인쇄	0.88	0.82	0.84	0.90	0.40
석유 및 정제	2.37	1.68	1.82	1.22	1.85
화학	1.79	1.64	1.64	1.64	2.14
고무플라스틱	0.91	0.75	0.82	0.73	0.91
비철금속	0.56	0.53	0.68	0.60	0.60
철강금속	1.44	1.57	1.91	1.72	1.70
기계	0.77	1.01	1.22	1.27	1.43
전자광학	2.37	2.98	3.08	2.94	3.57
운송기기	1.35	2.01	2.48	2.20	1.80
기타제조	0.90	0.47	0.57	0.55	0.76

[자료원] ADB MRIO이용 저자작성(2021.1)

3 | GVC 구조 재편 방향

1. 글로벌가치사슬 둔화의 요인

- 수요탄력성이 큰 GVC 무역
 - 글로벌가치사슬 성장 둔화의 한 가지 원인으로 GVC 무역의 수요 탄력성이 크다는 점으로, 이러한 특징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가 GVC 무역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옴
 - GVC 무역은 경제 위기 시 더욱 많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소득 감소에 따른 영향이 전통무역에 비해 크다는 것을 입증
 -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 때 GVC 무역은 더욱 많이 증가하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GVC 무역의 회복력을 증명
 - 금융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글로벌 경제는 이후 저소득, 저물가, 저금리 등으로 대표되는 New Normal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GVC 무역 역시 재차 급속하게 축소
- 글로벌가치사슬 성장 여력 축소
 - 글로벌가치사슬이 이미 활용 가능한 지역과 국가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 충분히 성장하였다는 의견이 제시
 - 2008년 GVC 무역이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GVC의 확대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특히, 자유주의 무역 기조 쇠퇴와 자동화 및 3D 프린팅 등 생산 비용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은 개도국의 비용 우위를 활용한 GVC의 확장에 어려움을 있음을 지적
- 글로벌가치사슬의 태생적 특성
 - 글로벌가치사슬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즉 긴 생산공정에 따른 생산과정 변경 혹은 생산품 변경이 수월하지 않은 특징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선호나 소비자 맞춤형 상품생산에 한계

- 이러한 특징은 긴 생산공정 가운데 특정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체 공정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내포
- 선진국 내에서 생산활동과 개도국에서의 생산활동 간의 비용 차이가 급격하게 축소하는 추세임*

* 기업이 글로벌가치사슬을 구축함으로써 얻는 비용 측면의 이점과 관련,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생산품의 품질과 경영 관리상의 어려움 포함하는 비효율성을 적용한 총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을 고려함을 가정

2. GVC 재편 방향: Shorten & Diversified GVC, Digitalization

- 차이나 디커플링, 수요에 근접한 on-shore 및 near-shore 현상, 공급체인 단위(nodes)의 다양화(diversification)
 - GVC의 평균생산길이 즉 글로벌 생산구조를 활용하는 생산단계의 수치가 감소하여 GVC 구조가 축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 수요에 근접한 on-shore 및 near-shore 현상 지속이 예상됨
 -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저개발국에 생산공장을 투자하여 가공조립하던 생산방식은 줄어들고 국내 생산 및 교역구조의 고도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는 글로벌 가치사슬 결정에서 비용이나 시장, 정치·군사적 위험 이외에 생물학적 위험요인을 등장시키며, 글로벌 공급망과 생산 거점 재편을 촉진
 - 이에 따라,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점검하고, 팬데믹 종료 후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성 증대
-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관련 생산 차질은 제한적으로 발생
 -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조달은 일부 부분적인 통관·물류 과정에서의 차질이 발생했었으나, 이는 해결되어 통관·물류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
 - 국경이동 제한, 사회적 격리 등 지속 시, 핵심부품·소재·장비의 수입에 일부 차질이 있겠으나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글로벌 네트워크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공급망 변동 포착
 - 공급원의 탈중국과 맞물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신남방 지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에서 새로운 프런티어로 부상
-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국내 조달 및 생산 기반의 중요성 부각
 - 전략 부문 공급망 자립화 및 자국내 산업생태계 구축 필요성 증대
 - 디지털 전환 및 생산지능화로 제조업 생산의 리쇼어링 촉진될 것으로 전망

<주요 제조업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방향>

산업	현황	예상되는 변화의 방향
자동차	- 일부 품목 중국 의존도 높은 수준	- 동남아 등으로 공급선 다변화 - 스마트제조 전략으로 국내 조달 확대
조선	- 유럽 및 일본 일부 납기 지연생산 중단	- 유럽 기자재 국내 유치 - 중국 블록공장 복귀
일반기계	- 국산 비중 높음.	- 일부 조달 품목의 신흥국 다변화
철강	- 수입선 다변화 높은 수준	- 반제품·1차제품 수입선 다변화
석유화학	- 중동산 원료·일본산 중간재로 생산된 제품을 중국·아세안으로 수출	- 글로벌 시장의 지역별 블록화
정유	- 원유 조달국 집중 - 원유가격 변동성에 취약	- 탄력적 원유 조달 전략 추진 - 국가간 직수출 확대, 해외 인프라 구축
섬유	- 중국산 부자재 일부 조달애로	- 중국 영향력 강화에 대응
가전	- 안정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조립 공정의 자동화·스마트제조화 촉진
통신기기	- 생산·부품 공급 다변화 높은 수준	- 중국 ODM 축소분의 국내·베트남 대체 생산
디스플레이	- 베트남 투자 확대	- 모듈 공정 중국 비중 감소, 베트남 확대 가속화
이차전지	- 주요 소재 중국·일본 수입	- 해외 현지생산-납품 비중 증가 - 후방산업 해외 동반진출

[자료원] 산업연구원(2020) “코로나19가 제조업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재인용

Ⅲ GVC 재편과 주요국 산업정책³⁾

1 주력시장 : 미국, 중국, EU, 일본

1. 미국

가. 산업 정책

-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 격화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산업 정책의 중심이 ①미국 내 제조업의 부흥과 ②이와 관련한 GVC 재편 움직임을 가속하는 방향으로 전개
 - 미국은 첨단기술 및 핵심산업에 대한 국산화 정책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여 제조기지의 탈 중국화를 도모
- (핵심 산업의 국산화 정책) 미국 정부는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과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자급력을 향상을 목표
 - 국방물자생산업통해 자국 내 부족한 의료 물자를 조달하고 증산을 명령하며 정부가 해당 물자에 대한 유통 및 분배에 개입
 - 바이아메리칸은 정부 조달 사업에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철강을 비롯한 인프라 사업, 의료산업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 생산의 활성화 및 관련 기업의 리쇼어링과 연계
- (리쇼어링 정책)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정부는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 중임
 - 리쇼어링 정책의 주요 내용은 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액 공제 지원 확대, 미국산 제품 구매 우선 정책, 고용 보조금 등

3) 본 장의 주요 내용은 KOTRA(2019) 글로벌 가치사슬 주요국 산업정책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근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을 서술함

- 아울러 해당 정책은 대중 관세 부과와 관련되어 최대 25%의 이르는 고율관세가 특정 품목에 부과되고 있으며, USMCA 체결국가의 자동차 부품 사용 비율 확대 등을 포함
- 산업, 대학, 정부가 참여하는 첨단제조업파트너십(AMP)을 발족하여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한 기술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 미국 정부⁴⁾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미국 기업의 국내 복귀가 증가세를 보임 (2016년 267개 → 2018년 886개)
- 미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개편은 리쇼어링 정책 요인 외에도, △중국의 생산 비용 상승과 △장기화되어가는 미-중 분쟁 등이 주요한 요인이 됨
- 탈중국을 선언한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등 생산 비용이 낮지만 숙련 노동력을 보유한 주변 동남아 국가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임
- (공급망 다변화) 미국 정부는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한편, USMCA 체결국가 등 근접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유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제조기지로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의 역할이 강조됨

나. 주력 산업

1) 정보, 전자, 통신(ICT)

- 세계 4차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첨단 산업 육성에 주력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제안, 이에는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5G는 미국의 주요한 육성 분야로서 관련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함
 - 최근 백악관은 5G의 2020년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5G 시장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전략이 논의되고 있음

4) Reshoring Initiative 2018 Data Report

○ AI 분야와 관련하여 미국은 2016년부터 관련 정책*을 추진 중

<미 AI 관련 주요 정책>

- (1) 국가 AI R&D 전략 계획(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D Strategic Plan)
- (2) AI, 자동화 및 경제(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 (3) 미국인을 위한 AI(AI for the American People)
- (4) STEM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5개년 계획(5-Year STEM Education Strategic Plan)
- (5) AI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

- 트럼프 정부는 2019년 2월 ‘미국인을 위한 AI(AI for the American People)’을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 경제 및 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AI 선도가 필요함에 따라 계획됨

○ 기술주권 확보의 일환으로 미국은 기업의 특허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음

- 2008년 이후 출원된 기술관련 특허의 약 64%를 미국이 차지

<미국 AI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

구분	전략	내용
1	연구개발 투자	- 연방기관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AI 연구개발 투자를 최우선 추진
2	인프라 개방	- 데이터, 모델, 컴퓨팅 리소스를 AI 연구자에게 개방 - 정부 데이터 법(OPEN Government Data Act) 시행
3	거버넌스 표준화	-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지침 수립 - 인공지능 시스템 기술표준 개발
4	전문인력 확충	- 펠로우십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국민의 AI 잠재력 향상을 위한 STEM 교육 확대
5	국제 협력	- AI R&D를 장려, 시장 창출이 가능한 국제적 환경 조성 - 자국 이익 보호 및 경제안보 위한 액션플랜 개발

[자료원] AI Hub(2020)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최신 정책 동향

2) 바이오산업

- 미국은 바이오 부문의 국가경쟁력이 매우 높은 국가로, 'Scientific America'가 발간하는 바이오 경쟁력 순위에서 2009년 이후 매년 1위 차지
 - 최근 미국 바이오 시장은 주요 제약회사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바이오 의약품과 희귀병 관련 의약품 등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시장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함
- ICT와 함께 미국은 보건의료를 국가의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 과제는 정밀의학 활용을 통한 질병 타겟팅, 신경기술, 의료전달체제 등을 포함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투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분야임
 - 초기 투자 규모 커 진입장벽이 높은 바이오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R&D 지출 확대는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2019년 기준 미국 정부의 전체 예산 중 R&D 예산은 1,340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3%를 차지하고, 보건 분야에 대한 예산은 368억 달러 수준인데, 이는 비(非)국방 R&D의 27.4%를 차지함⁵⁾

5)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9), 국외 바이오 정책동향

□ 한-미 산업 협력 사례

○ 한-미 ICT 정책 포럼

- 한-미는 2013년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통해 ICT 정책포럼 정례 추진을 합의함
- 해당 포럼은 정부 간 정책 공유를 포함하여 산업계의 참여를 통해 민간부문 교류를 활성화하는 산업협력 강화가 목적

구분	일시	주요 의제
제1차	2013	- 창조경제, 사이버 기반시설 보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TU-T 표준, 국제기구 협력 등
제2차	2015	-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및 프라이버시, ICT 환경변화 대응, 미래 유망기술, 국제기구 협력 등
제3차	2016	- ICT 환경변화 대응, 국가 간 정보흐름 및 정보보호, 5G 등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위한 주파수 계획,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 시티, 국제 협력, ICT 개발원조, 사이버보안 공동연구 체결 - 본 포럼에서 ICT 융합 신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
제4차	2018	- ICT 정책, 사이버보안, 5G 이동통신 상용화, 인공지능 기술 개발 협력, 국제기구 활동 협력, 국경 간 정보이동
제5차	2020	- ICT 정책, 5G 이동통신 보안, 인공지능, 국제기구협력, 민간분야 이슈

[자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취합

2. 중국

가. 산업 정책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수요가 감소하고 글로벌가치사슬이 단절되며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중국은 내수 활성화와 자국 내 공급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제조업 강화 정책으로는 소재·부품·장비에 초점을 맞춘 △‘중국 제조 2025’, △‘전략성 신흥산업’ 정책 등이 있음
- 아울러 반도체 분야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업의 인수합병, △인재 육성 및 유치, △R&D 확대 등을 추진함
 - 중국의 2가지 제조업 정책의 육성산업을 보면 대동소이함. 해당 정책 내에서 각 정부 부처별로 중점산업을 선정하여 관련 세부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중국제조2025’ 정책은 2025년까지 의료 및 바이오, 로봇, 통신장비, 항공 우주, 반도체를 포함하는 10대 제조업 분야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2015년에 수립되었으며, 인재 육성 및 시장 개방 등이 주요 내용임
- 전략성 신흥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신소재산업, △첨단장비제조산업, △에너지환경산업, △바이오산업, 디지털 창의산업 등 8대 분야 육성 계획임⁶⁾
 - 新에너지 자동차의 경우 2030년까지 중국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0% 육박할 것으로 전망, 중국내 판매량도 연 1,000만대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 성장성도 매우 높음⁷⁾
 - 중국 지방정부는 10여개 성시에서 수소에너지 산업발전 정책을 발표해 수소차 산업 육성에 집중하기로 하였으며 연료 배터리 산업기초가 마련된 도시에서 수소차 보급을 확대 예정

6) 산업연구원(2018)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 개요

7) KOTRA(2019) 글로벌 가치사슬 주요국 산업정책

< 중국제조 2025의 중점육성 10대 산업분야 >

10대 산업	주요 내용
차세대 IT 기술	- 집적회로 및 전용설비, ICT 설비 - 사무 디지털화 및 산업용 SW
고급 디지털 제어 공작기계 및 로봇	- 고급 디지털제어 공작기계 - 로봇(산업용, 특수 로봇, 서비스 로봇 등)
항공 우주 설비	- 항공설비(대형 항공, 중형 헬기, 간선비행기, 헬기, 무인기 등) - 우주설비(발사용 로켓, 신형 위성, 위성 원격탐지, 달 탐측기술 등)
해양 공정 설비 첨단선박	- 해양공정 설비(심해 탐측, 자원 개발, 해상작업 설비 전용설비 등) - 첨단선박(크루즈 설계, 액화천연가스 선박 등)
선진제도 교통 설비	- 신소재, 신기술의 응용 및 경량화, 모듈화, 체계화 상품 연구 등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 모터, 고속 내연기관, 첨단 변속기, 경량화 소재, 스마트 제어 등 핵심기술의 산업화 및 능력 제고 등
전력 설비	- 고효율 석탄전력설비 산업화, 수력발전/원자력발전/중형가스터빈 생산수준 제고 및 핵심 부품과 원자재 기술제고 등
농업 기계설비	- 첨단 농기구 및 핵심부품 발전 가속화
신소재	- 신소재 핵심기술과 연구개발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 영상설비, 의료용 로봇 등 고성능 의료기기,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원격진료, 3D 바이오프린터, 다용도 줄기세포 등

[자료원] 산업연구원 (2016), “중국제조2025 추진과정과 시사점” 중국 산업 브리핑, 재인용

- 중국은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과 더불어 성장하는 거대시장으로서 생산·제조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
 - 한국은 수소연료전지, 배터리 등 미래형자동차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
 - 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점도 가지고 있어 미래자동차 분야에서 상호 공급망을 새롭게 형성하는데 매우 유리한 상황

< 중국의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 및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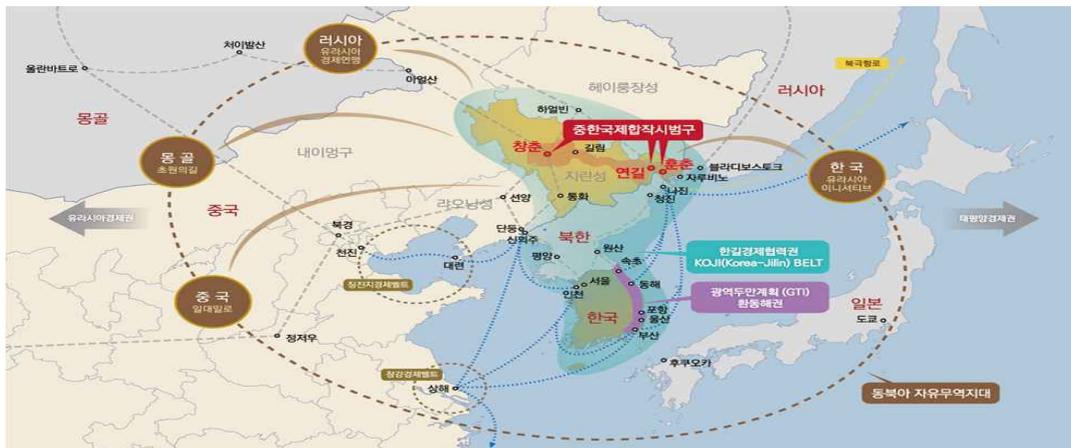
산업분야	주요 내용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 차세대 정보통신산업, 정보기술서비스, 전자핵심산업, 인터넷 정보 보안 상품 및 서비스, 인공지능
첨단장비 제조산업	- 스마트 제조 장비산업, 항공산업, 위성 및 응용산업, 철로 교통장비산업, 해양공정장비산업
신소재 산업	- 신형 기능재료산업, 선진 구조재료산업, 고성능 복합재료산업
바이오 산업	- 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의약공정산업, 바이오농업산업, 바이오제조산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
신(新)에너지 자동차 산업	- 신에너지 자동차 상품, 전차 충전, 교체 및 수소 공급시설, 생산 및 테스트 설비
신(新)에너지 산업	- 원자력발전기술산업, 풍력에너지산업, 태양광에너지산업,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산업	- 고효율 에너지절약산업, 선진 환경보호산업, 자원순환이용산업
디지털 창의 산업	- 디지털 문화창의, 디자인서비스, 디지털 창의 관련 산업의 융합 응용 서비스

[자료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8),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정책과 특허동향 분석 및 시사점” 재인용

□ 한-중 산업협력 사례

○ 한·중 국제 협력 시범구 건설

- 중국은 2020년 5월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방안을 공표하였으며 국무원 승인을 획득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도의 최초의 정부 간 협력 시범구로서 동북3성의 창춘 신구에 첨단기술 분야의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것을 기대
- 해당 산업단지는 인공지능, 5G, 반도체, 로봇,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가상 현실, 스마트 제조 등 ICT 및 첨단기술 분야와 보건의료, 건강식품, 문화 산업 등에 대한 협력을 위해 한국 기업을 대거 유치한다는 계획
- 중국 입장에서 해당 계획을 일대일로의 공동 건설 및 동북 지역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구축을 도모
- 한국 입장에서 해당 계획은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서 양국의 윈윈(Win-Win)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현재 대상과 CJ 등 일부 대기업이 투자 계획
- 시범구는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지원시스템, 무역 편리화, 출입국 간소화, 재정지원, 금융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시범구만의 특화된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



자료:중한산업원(<http://www.ccksp.com/>)

[자료원] 김동수(2020) “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출범과 의의” 중국산업경제브리프 통권74호, 산업연구원,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등 취합

3. 유럽

가. 산업정책

- 2020년 3월 유럽집행위가 발표한 신산업전략은 3대 우선순위 목표로서 유럽의 재산업화를 통한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050 기후 중립 달성 및 유럽의 디지털 전환을 제시함 8)
- 해당 전략의 목표는 글로벌 경제 지형의 변화와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유럽의 경쟁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달성하는 것임
- 신산업전략⁹⁾의 우선순위 목표는 △산업경쟁력 강화, △기후중립 달성, △디지털 전환이며, 목표 달성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다음을 제시

<신산업전략 목표 달성 위한 주요 수단>

- (1) 지적재산권 강화
- (2) EU 경쟁 규칙 검토
- (3) 무역 방어 메커니즘 구축
- (4) 에너지집약산업의 현대화 및 탈탄소화
- (5)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운송 산업 지원
- (6) 에너지 효율 촉진 및 △저탄소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보장
- (7) 유럽의 산업 및 전략적 자율성 강화
- (8) 청정수소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제시

- 특히 EU는 미래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가치사슬 안정화를 통한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도모함
-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5개 분야* 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 △디지털, △방위 및 우주산업, △공급사슬 재편, △의약산업임
- *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직접투자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5G 통신, 사이버 안보, 양자통신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며, 우주기술, 데이터 및 서비스를 통한 혁신 기술을 지원하고, 핵심원재료의 공급망을 다양화가 포함됨. 아울러, 코로나19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제약산업 전략을 마련함

8) European Commission, Towards a sustainable Europe by 2030

9) European Commission(2020), 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나. 전략산업

- ‘유럽의 전략적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유럽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전략 포럼*’을 구성, 해당 산업의 발전적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보고서 **작성

* Strategic Forum for 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 **포럼** : 유럽의 그린 및 디지털 전환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을 선정하여 전략적인 방법으로의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분석과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EU, 회원국, 산업계의 공동의 노력 장려 및 투자 촉진

** **보고서** : 전략적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6대 전략부문을 선정하여 분석하고,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

- ① 커넥티드, 청정 및 자율 주행차, ② 수소기술 및 시스템, ③ 스마트 헬스, ④ 산업 IOT, ⑤저탄소 산업, ⑥사이버 안보 부분임.

- 이 밖에도,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배터리, 고성능 컴퓨팅을 추가적으로 선정

< 유럽의 전략적 가치사슬 핵심분야 >

선정 기준

기술 혁신, 경제 및 시장 잠재력, 사회 및 정치적 중요도

관련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인 분야

- 배터리(European battery alliance, Strategic action plan for batteries)
- 고성능컴퓨팅(EuroHPC Joint Undertaking on High-Performance Computing)
- 마이크로전자공학(IPCEI in Microelectronics)

전략적가치사슬 구축 선정분야

- | | |
|------------------|-------------|
| ·청정, 커넥티드, 자율주행차 | ·수소기술 및 시스템 |
| ·사이버안보 | ·저탄소배출산업 |
| ·산업 IoT | ·스마트보건 |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2019), Strengthening Strategic Value Chains for a future-ready EU industry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코로나19로 인해 유럽은 의료산업 등 국가 필수산업에 대한 역내 생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관련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
- 유럽은 의약품 공급안정화와 신약품 혁신연구개발이 핵심 내용인 ‘EU의 제약전략(EU Pharmaceutical Strategy)’를 발표할 예정

- 의료산업 외에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서 전술한 신산업정책을 제시하였고, 이는 △단일 시장 강화, △EU 기업 보호, △유럽전략산업 보호, △신산업 육성계획 등을 포함함

□ 한-EU 협력 사례

○ 한·EU 과학기술협정

- 한·EU는 2007년 한·EU 간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격년마다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활발히 펼치고 있음
- 한·EU는 공동 펀딩을 통해 기획부터 수행 및 평가까지 사업 전주기를 공동 관리하는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임
- 2016~2017년 1단계 연구를 수행하였고, 2018~2020년 5G, 인공지능,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160억 규모의 2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중임

4. 일본

가. 산업정책

- 일본은 보호무역주의 및 코로나19로 인해 취약성이 드러난 공급사슬의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리쇼어링, 생산거점 다각화, 해외 진출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함
 -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쇼크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글로벌가치사슬 구축을 도모
 -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자 보조금 지급을 지원하고, 특히 보건 산업의 경우 국내 복귀 시 이전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함 (중소기업 3/4, 대기업 2/3)
 - 아울러, 공급사슬로 인한 단절에 대비하여 희토류 등 대체가 어려운 자원을 비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일본의 핵심 산업은 차세대 자동차 및 에너지 부분으로 볼 수 있음

나. 전략산업

1) 차세대 자동차

-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출하액 기준으로 볼 때 전체의 21.4%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차세대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2018년 차세대자동차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고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는,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글로벌 해결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협력, 관련 사회시스템의 구축임
 -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의 경우 차세대 전동화 기술 개발과 관련한 것으로 전고체전지, 혁신형축전지, 연료전지 및 전동화관련 기술 전반에 대한 기술개발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탈탄소화를 위한 바이오연료 및 대체연료 개발, 관련 인재육성 등이 포함됨

- 글로벌협력의 경우, Well-to-Wheel Zero Emission 관련 국제 협조를 유지하고, 전동화 정책에 관련한 국제협조를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사슬의 전동화를 위한 인재육성 지원을 포함함
- 사회시스템 확립은 전지 자원의 안정적인 조달 및 위험요인 경감, 전지 리사이클 시장 창출, 분산형 에너지 사회를 위한 차세대 자동차 보급 가속 및 인프라 구축임.

2) 수소 에너지

-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3E+S 정책을 바탕으로 2050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탈탄소화 달성이 주요한 비전임
- 2018년 발표된 5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액션 플랜을 제시함

< 일본 5차 에너지 기본 계획 주요 내용 >

2030년 중기목표	
목표	온난화가스 26% 삭감 및 에너지 믹스 실현
주요 내용	(1) 신재생에너지 확대 (2) 안전한 원자력에너지 가동 (3) 화석연료에 대한 자주개발 및 재해리스크 대응 (4) 에너지절약 및 수소/축전지/분산형에너지 추진
2050년 장기목표	
목표	온난화가스 80% 삭감 및 에너지 전환, 탈탄소화 달성
주요 내용	(1) 신재생에너지: 경제적 자립, 탈탄소화를 목표로 수소/축전지/디지털 기술개발 (2) 원자력에너지: 안전화 추구/백엔드기술개발 (3) 화석연료: 자원외교 강화, 가스이용으로 전환 및 비효율석탄연료는 감축 (4) 열, 운송, 분산형 에너지: 탈탄소화,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및 지역개발

□ 한-일 협력 사례

○ 한·일 산업 기술 페어

- 한·일 양국은 2008년부터 민간 교류 촉진 및 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일산업기술페어를 개최함. 2020년 기준 총 13회의 페어를 개최함
- '한·일 산업 기술 페어2020'은 한·일 비즈니스 상담회, 기술지도 매칭 상담회, 한·일 협력 세미나로 프로그램이 구성됨.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한일비즈니스 상담회	- 양국의 기업이 참여하여 부품 및 완제품에 대한 수입수출 상담, 공동 연구개발 추진, 신규비즈니스 발굴 등에 관하여 협의
기술지도 매칭 상담회	- 일본의 우수 퇴직 기술자와 기술지도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을 연계하여 최대 8개월까지 기술지도(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해소)를 실시
한일협력 세미나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IoT 및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의 활용'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의 전략 및 기술 사례 공유

2

주요 신흥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1. 베트남

가. 산업정책

-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2025년 베트남 산업발전전략¹⁰⁾’을 발표
 - 본 정책은 ‘농업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농림수산업, 수출용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제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정의, 해당 산업 관련 부품 및 소재 산업의 육성을 강조함
 - 베트남은 자국의 부품 및 소재 산업의 발달 수준이 낮아 베트남 기업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자국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부품 소재 산업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함
 - 해당 마스터플랜은 기계공학, 전자정보기술, 자동차 조립생산, 섬유 및 의류, 첨단기술 등 주력산업과 부합하는 분야에 해당함

나. 전략산업

1) 자동차 산업

- 베트남 정부는 2018년을 기점으로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공장을 유지하고,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옴
 - 현재 베트남 자동차 산업 인프라는 기초적인 수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자동차 부분의 대부분 (90%)을 수입에 의존

10) 한국토지주택공사, 베트남 산업단지개발 진출전략 수립

- 베트남은 자동차산업을 국가의 핵심 발전 산업으로 지정하고, 국내 자동차 제조업 보호를 위해 완성차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함
- 現 베트남의 자동차 시장은 태국 및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차가 높은 비중(전체 수입차의 89.1%)을 차지하고 있음(일본이 생산기지로서 태국 및 인도네시아 사용)

<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정책 변화 >

정책	주요내용
2014년, 베트남 자동차 산업 마스터플랜 발표	- 자동차 산업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 발전전략 및 비전 제시
2015년, 자동차 및 부품분야 발전 액션플랜	- 부품 수입관세, 특소세 조정, 수수료 감면 등 장기적 국내 생산기업 지원책 마련, 육성 지원산업 지정
Supporting Industry 지원정책	- 자동차 제조 조립을 포함한 6개 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R&D 비용지원 등 지원정책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 총리 결정문	- 지원을 위해 자동차 제조, 조립분야 우선 지원대상 선정
자동차 특별소비세 변경	- 수입 완성차 특소세 과세 기준을 수입가에서 소매가로 변경
완성차 수입규제	- 완성차 수입요건 강화, 수입 완성에 불리한 세제 개편 실시
국내 자동차 기업 우대정책	- 자동차 부품 조건부 관세 면제제도 시행,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특소세 감면 논의
국내 제조 자동차 특소세 폐지	- 논의 중

[자료원] KOTRA(2019), 국별 진출전략 베트남 (2021.1 확인)

2) 전자 산업

- 베트남정부는 2018년 국가산업개발정책 결의안을 통해 전자산업을 우선순위 육성 분야로 선정함
 - 해당 정책안은 부품소재산업 관련 투자 혜택을 제시하는데 이는 법인세 우대, 수입세 우대, VAT 우대, 신용대출 우대 등을 포함함
 - 전자산업 육성의 배경에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이 가속화되며, 전기·전자분야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추세가 영향을 미침

- * 현재 베트남에는 약 1,500개 이상의 전기·전자 외국계기업이 진출하였으며,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산업 분야로 발전함
- 베트남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의 주요 요인은 저임금 노동력, 시장 친화적인 정책 환경,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의 다변화 필요성 강화 등이 주요 요인임
- 한편, 중국 대비 숙련노동력이 부족하고, 기술력이 부족하며 내수 시장이 협소한 것은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됨

3) 신재생에너지

- 베트남 정부는 ‘제7차 베트남 전력개발계획’을 개정하며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을 21%로 늘리는 등 에너지원 다각화를 위해 노력함
-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는 소수력발전,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며,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0년 6.5%, 2025년 6.9%, 2030년 10.7%까지 확대할 계획임

<베트남 태양광·풍력 발전 주요 정책>

법령	내용	발효일
Decision No.39/2018/QD-TTg	풍력 에너지개발 지원 정책(개정안)	2018.11.1.
Circular No.16/2017/TT-BCT	태양광 전력구매계약 규정	2017.10.26.
Decision No.428/QD-TTg	제 7차 베트남 전력개발계획 개정안	2016.3.18.
Decision No.2068/QD-TTg	비전 2050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개발전략	2015.11.25.
Circular No.96/2012/TT-BTC	풍력 에너지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정책	2012.8.1.
Decision No. 37/2011/QD-TTg	풍력 에너지개발 지원 정책	2011.8.20.

[자료원] Decision No.428/QD-TTg, KOTRA (2021.1 확인)

- 베트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해당 분야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인센티브>

구분	태양광	풍력
법인세	15년간 10% 우대세율적용 (4년 면제, 9년 50% 감면)	15년간 10% 우대세율적용 (4년 면제, 9년 50% 감면)
수입관세	원부자재 및 투자 기계·설비 관세 면제	원부자재 및 투자 기계·설비 관세 면제
토지세	사회경제낙후지역에 속하는 경우 일정 기간 토지세 면제	사회경제낙후지역에 속하는 경우 일정기간 토지세 면제
전력구매가	개정 중	- 육상 풍력 : VND 1,928 - 해양 풍력 : VND 2,223
기타	기존 베트남 태양광 전력구매가는 VND 2,086이었으나 '19.6.30일 부로 만료됨.	-

[자료원] 현지 법령 및 KOTRA 호치민무역관 정리(2021.1 확인)

2. 인도네시아

가. 산업정책

- 인도네시아 정부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Making Indonesia 4.0 Roadmap)’을 구축하였는데, 해당 로드맵은 첨단 ICT 산업 육성, 바이오 산업, 하드웨어 자동화 등을 포함
 - AT Kearney는 인도네시아의 현 산업 단계를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평가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경제 흐름에 부합하는 혁신을 추구함
 - 인도네시아는 로드맵 구현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과 산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대
 - 특히 ICT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상호연결성을 구현하는 사물인터넷(IoT) 산업 육성, 전자문서 시스템, 데이터 활용, 콘텐츠의 디지털화 등을 강조함

나. 전략산업

1) 일반 기계 산업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을 구축하며 첨단 제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해당 로드맵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을 도모하고, 로컬 콘텐츠의 비중 조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됨
 - 5대 주력산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식음료, 자동차, 섬유, 전자 및 화학으로 기계의 사용이 필수적인 분야임
- 2020~2035년 인도네시아 기계 산업 개발계획은 제조업 육성에 있어 기계산업의 발전을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강조하며 기계 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강조함

<2020~2035년 인도네시아 기계 산업 개발 계획 주요 내용>

- (1) 정밀 제조 산업이 핵심인 기계 산업과 관련된 특수 산업분야 육성(수송기계,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 에너지 절약을 비롯하여 생산 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계산업의 기술개발 및 역량 강화
- (2) 철강, 비철금속 재료, 합금강의 공급 및 기술 개발, 복합재료 및 세라믹 등 관련 재료 공급 및 개발 시설 마련
- (3) 특별 기계 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정밀기기 부품 생산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육성
- (4) 연구개발을 통해 공정 기술 및 제품 엔지니어링 기술 개선하고, 국내 제품 사용 독려를 통한 수입 의존도 감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 직접 투자를 통해 내수의 생산 기반을 마련, 수출 증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직접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2) ICT 산업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5~2025년 인도네시아 국가 ICT산업 육성 로드맵’을 작성함

- 해당 로드맵은 경제 및 인프라 개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연결성 강화라는 비전을 제시
- 국가 ICT 위원회 설립, 인프라 및 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IT 산업 개발계획을 포함함

< 2005-2025년 인도네시아 국가 ICT 로드맵 >



[자료원] HM Government A Frost & Sullivan White Paper, Digital Market Overview : Indonesia (2019)

- 인도네시아는 각종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시도
 - 해당 사업은 도시정보시스템, 학교, 교통, 병원, 전력, 상하수도, 폐기물 및 기타 커뮤니티 서비스 등에 적용될 수 있음
 - 스마트시티 대상 도시는 자카르타, 반둥, 땅그랑, 수라바야, 마까사르, 스마랑, 족자카르타, 덴빠사르 등이며 각 도시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의 도시를 설계함
 - 자카르타의 경우 대중교통 운영 및 홍수 방지 시스템, 반둥의 경우 전자정부 시스템, 수라바야의 경우 교통 및 헬스케어 분야에 초점을 맞춤

3. 태국

가. 산업정책

- 태국 정부는 안보, 번영 및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자급경제 목표로 하는 장기 국가발전전략 (20 Year National Strategy '17 ~'36)을 수립¹¹⁾
- 해당 정책은 6대 핵심전략, 6대 우선순위 부문과 4대 지원전략을 포함*

- (1) 6대 핵심 전략 : △국가안보 보장, △국가 경쟁력 향상, △인적자본 육성 및 강화, △사회적 기회 및 평등 확대, △환경친화적 개발 및 성장, △행정 개혁 등 6대 분야
- (2) 6대 우선순위 부문은 △인적자원 잠재력 개발, △정의 구현 및 사회불평등 감소, △경제 증진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친환경 성장 추진, △번영과 지속가능성을 향한 국가개발, △공공부문 효율성 및 거버넌스 강화임
- (3) 4대 지원전략은 △인프라 및 물류개선, △과학·기술·연구·혁신 향상, △도시·지역·경제 구역 개발, △국제개발협력 지원임

- 태국 정부는 위 장기 비전 하에 5년 단위의 국가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12차('17~'21년) 추진 중
 - 경제 및 사회 개발계획은 1960년대부터 수립되었으며, 연대별 경제 및 사회 상황에 따라 특징이 변화했음
 - '12차 경제 및 사회 개발계획'은 태국 중장기 발전전략과 ICT 발전전략인 태국 4.0(Thailand 4.0)과 궤를 같이 하며, 해당 계획의 10대 전략은 다음과 같음*

<12차 경제 및 사회 개발계획 10대 전략>

- (1) 인적자본 강화
- (2) 정의사회 구현 및 불평등 해소
- (3) 경제 강화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
- (4)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친환경 성장
- (5) 국가안보
- (6) 공공행정, 부패 방지, 거버넌스 강화
- (7) 인프라 및 물류 발전
- (8) 과학, 기술, 연구, 혁신
- (9) 지역, 도시, 경제구역 개발
- (10) 국제협력¹²⁾

11)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태국의 경제발전정책과 한·태국 협력 확대 방안

- 태국의 혁신전략인 ‘산업 4.0’은 산업 전반에 ICT 기술을 도입하고, 스마트 산업 및 스마트 시티 구현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
 - 해당 전략은 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5대 육성분야(미래 자동차, 전기전자, 의료 관광, 농업 및 바이오, 미래식품)에 ICT 기술을 접목하고자 함*
 - * 4차 산업을 위한 핵심기술 요인으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공유하며 초 연결성 제품 혹은 사물인터넷을 구현, 슈퍼컴퓨팅 혹은 빅데이터 활용, 로봇,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증강현실, 3D 프린팅 등 스마트 기술 활용, 사이버 안보를 강조¹³⁾
 - 아울러, △디지털, △로봇, △바이오·화학, △의료허브, △항공·물류 등 5대 미래형 기술산업을 정의, 장기적 육성 계획 有
 - 산업 4.0의 성공 열쇠로서 교육시스템 개혁,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강조

나. 전략산업

1) 자동차산업

- 자동차 산업은 태국 정부가 주도하는 태국 4.0 정책의 전략산업 중 하나로, 미래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자율운행차, 인텔리전트 수송 시스템 등이 포함
- 태국 정부는 완성차 및 부품 제도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100%의 법인 설립이 가능. 세부 부품의 종류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하여 지급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한태 수교 6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신남방정책 협력과제

13) ILO(2017), Thailand 4.0 and the Future of Work in the Kingdom

<자동차 부품 종류별 인센티브 현황>

구분	A2 첨단기술 부품*	A3** 엔진제조	A4 엔진조립	B1 기타 자동차부품
법인세(CTI) 면제	8년	5년	3년	-
기계 관세면제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원자재 관세면제	수출품 제조용 원자재 수입관세 1년 면제(연장 가능)			
비세제 인센티브	토지소유, 외국인 숙련공 고용, 외국환 해외송금 허가 등			

* 전기차 부품 및 안전관련 부품 등

** A3: 프로젝트는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크랭크샤프트, 차량 샤프트 및 커넥팅 로드 등 5개 중 4개 이상의 부품에 대한 프레스링 작업이 의무화

[자료원] 태국투자청(BOI), KOTRA (2021.1 확인)

- 태국은 전기자동차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액션플랜 ’16-’30’을 수립하였으며, 궁극적으로 2036년 기준 전기차 120만대, 690개의 전기차 충전소 구축, 전기차 스마트 충전을 목표

<전기차 액션플랜 (2016~2036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간	2016~2017년	2018~2020년	2021~2035년	2036년 이후
내용	- 전기차/전기차 배터리/충전소 관련 법규 및 안전성 검토 등 준비단계	- 전기차 배터리 및 모터 관련 심층 R&D 수행 ○ 전기차 충전소 표준 수립 및 민간 투자 유도 ○ EV 등록 차량 증가 유도	- 민간 자동차 업계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지원 확대	- 기존 차량의 전기 차량 대체 ○ 전기차 등록대수 120만 대 달성 ○ 전기차 충전소 690개 확보

[자료원] 태국투자청(BOI), KOTRA (2021.1 확인)

-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200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 자동차 육성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친환경 자동차 육성 정책을 수립하였고, 해당 정책은 연구개발 및 생산을 포함
 - '60년대부터 자동차산업을 육성해왔고, 현재 동남아 최대의 자동차 생산 및 수출국임. 즉, 견고한 공급사슬과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태국 정부의 미래자동차 육성 정책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수요가 발생하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 중

2) 전기 · 전자 산업

- 태국의 전기전자 시장 규모는 약 600억 달러 수준이며, 2018년 기준 태국 전체 수출 중 약 20.1%를 전자 및 전기부분이 차지
 - 2018년 전기전자 수출은 621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
- 태국 내 관련 기업은 2,400여개에 이르고, 종사자수는 75만 3,000여명에 달하는 등 동남아시아의 최대 전기전자 생산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아울러, 태국 정부는 전기전자 산업 밀집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인프라 개발에 1.7조 바트(499억 달러)을 투자할 예정
- 특히, 스마트 전자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는데 태국은 1960년대부터 가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성장을 유도하였고, 최근 태국 4.0 정책에서도 전략산업으로 스마트 전자를 지정하여 관련 인센티브 도입
 - 전자전자 관련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지분 100%의 법인 설립을 허용하며 생산 품목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3) 로봇산업

- 태국정부는 10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로봇산업을 지정하였고, 해당 분야에 약 6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 로봇산업 육성은, 태국의 산업생산성을 증대하고, 로봇 제조 분야 기술 및 기업을 육성하며, 궁극적으로는 해당 분야의 수입 의존도를 축소하는 것이 목표
 - 로봇 및 자동화 산업 육성은 국가발전 및 고령화사회 진입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해결할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태국 투자청은 관련 기계 설계 및 연구개발, 조립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외국인 기업에 토지소유권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시

- ‘로봇 및 자동화산업 발전 로드맵’을 수립,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되는 시스템 통합 개발, △로봇공학센터 설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로봇생산을 위한 인적 자원 및 기술 개발을 추진
 - 해당 계획은 향후 5년 안에 150개의 로봇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며, 최소 2만 5,000명의 연수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로봇 산업 로드맵의 장기 로드맵(2026년까지)은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력 제고를 목표로 함
 - 이를 통해 자국의 기술로 아세안의 로봇 제작과 자동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로봇 및 자동화 기술의 수출국으로서 도약하고자 함

4. 인도

가. 산업정책

-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 우수한 기술인력, 천연자원, 대규모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춘 경제성장을 도모
- 인도의 제조업 기반 경제성장 정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으나,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산업 분야 확대
 - 2016년을 기점으로 과거 화학, 전기전자, 섬유 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전통제조업에서 확장하여 첨단 제조업을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
- 인도 정부는 정부 차원의 단계별 제조 프로그램 정책을 마련하고 핵심 분야 및 주력 산업을 정의하고 집중 육성
 - 핵심 분야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 화학, 비료, 철, 시멘트, 전력 등 8대 분야로 해당 산업생산의 기여율은 40% 수준
 -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섬유 등이 인도의 주력 산업이며, 자동차와 전기·전자는 '80~'90년대 이래 외자를 유치한 주력 육성 산업

- 인도 정부는 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해 과학,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제조업 분야별 기술로드맵을 제시하는 ‘기술비전 2035’을 수립함.¹⁴⁾
 - 이는 식품, 섬유 및 가죽, 화학, 금속제조, 복합 재료 제조, 마이크로 및 나노, 전기, ICT 등 전통제조업과 첨단 제조업을 포함함
- 섬유산업의 경우 인도는 해당 분야에 대한 다양한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견고한 수출 및 내수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방직기계 발전을 통한 기술 트렌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면 가공 자동 제어, 친환경 생산, 개인맞춤형 의류, 의료 부문 나노기술 채택, 산업용 섬유 등이 있으며, 의료 관련 스마트 의류도 섬유산업 혁신의 주요 부문으로 포함됨
- 화학산업은 인도 제조업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비실리콘 반도체, 대체 천연가스, 바이오 대체품, 식물성 합성수지, 전해 전지 시스템의 연료 전지 등의 제품이 있음
- 금속제조의 경우 인도 제조업 중 GDP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친환경 생산을 통한 폐기물 감축, 친환경 소재 등 친환경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춤
- 복합 재료 제조는 탄소섬유, 공정기술, 제품 기반의 복합설계 및 자동화 등을 포함하며, 이는 자동차 및 항공우주 분야의 탄소섬유, 반자동 몰딩기술과 관련됨
- 전자 및 ICT 제품의 경우, 인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서, 인도는 전자장비 중 칩설계 부문이 향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인식하고 해당 분야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춤
- 한편,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2020년 5월 코로나19 위기 타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인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
 - 이와 동시에 경제위기를 자력으로 극복하기 위한 자립인도 (Self-reliant)를 주장함

14) KIAT(2017) 인도의 국가혁신전략: 기술비전 2035, 미래산업정책 및 제조업 육성 정책

나. 전략산업

1) 전기자동차

- 인도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인도의 무역적자 및 환경문제 부상과 관련한 것으로 2030년까지 100% 전기차 전환이라는 목표를 설정함
- 인도 정부는 ‘2020 국가 전기차 보급계획¹⁵⁾’에 따라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빠른 도입을 위한 정부정책¹⁶⁾’을 수립하고,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대상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수요를 늘릴 계획임

* 이륜차, 삼륜차, 경상용차, 버스 포함

<FAME 보조금 지급>

- (1) 중형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1만 1,000~2만 4,000 루피(한화 18~40만원)
- (2)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5만 9,000~7만 1,000 루피(한화 99~120만원)
- (3) 전기차는 6만루피(한화 100만원)에서 13만 4,000 루피(한화 226만원)를 선지급

- 연방정부는 2019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3년간 총 14억 1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FAME 정책의 2단계 계획을 추진하기로 함
- 아울러, 인도 정부는 통합 배터리 및 셀 제조를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의 지원을 위해 ‘단계별 제조업 육성 정책¹⁷⁾’을 추진함
-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2019-2024년) 전기차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전기차 및 배터리 등 핵심부품의 현지 생산을 도모
- 전기차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 정부는 스마트 시티 정책을 통한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과 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함
 - ‘15년 6월 발표된 ‘스마트 시티 정책(Smart City Mission)’은 시민 친화적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도 전역에 100여개의 도시를 선정하여 재개발 및 보강 프로그램을 추진

15) National Electric Mobility Mission Plan, NEMMP

16) 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Hybrid and Electric Vehicles, FAME, 2015

17) PMP, Phased Manufacturing Program

- 아울러, 인도정부는 전기차 추진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향후 5년간(2020~2025) 70개 도시의 20개 고속도로에 대한 약 7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
- 모디 정부 2기 집권 기간 내 60,000km의 고속도로 건설 정책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 정책 추진 중

2) 반도체

- 인도정부는 2019년 국가 전기 정책(The National Policy on Electronics 2019)을 수립하여 생산 및 수출을 촉진하고자 함
 -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전자산업을 위한 국가정책’¹⁸⁾을 발표, 전자 시스템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수익 4,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자국 내 생산 및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아울러, ‘Make in India’ 계획 중 하나인 ‘단계별 제조 프로그램 정책’¹⁹⁾을 시행하여 휴대 단말기 제조 시스템 강화 및 내수 가치 향상을 도모함

<단계별 제조 프로그램 정책>

년도	분야
2016~2017	(i) Charger/Adapter, (ii) Battery Pack, (iii) Wired Headset
2017~2018	(iv) Mechanics, (v) Die Cut Parts, (vi) Microphone and Receiver, (vii) Key Pad, (viii) USB Cable
2018~2019	(ix)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x) Camera Module, (xi) Connectors
2019~2020	(xii) Display Assembly, (xiii) Touch Panel/Cover Glass Assembly, (xiv) Vibrator Motor/Ringer

[자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9),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18) The National Policy on Electronics 2019

19) The Phased Manufacturing Programmes Policy

3) 신재생에너지

- 인도 정부는 '26~'2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5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태양열 발전, 전기자동차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각각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인도 신재생에너지부는 2017년 태양광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통해 여러 주를 대상으로 각 500MW 이상의 태양광 산업단지를 조성
- '18.2월 발표된 '에너지 저장 발전 전략'²⁰⁾은 송신 배전망을 통한 재생에너지 분배 용이화, 낙후 지역에 집단 배전망 설치, 전기 자동차 에너지 사용 및 저장 기능의 결합 정책으로 구성됨
 - 인도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상업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향후 인도의 에너지 저장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중 저장규모는 2022년 기준 50-70GW가 될 것으로 예상
- 2018년 '국가 풍력 및 태양열 하이브리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대규모 풍력-태양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적인 전송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및 배전망 안정성 향상이 골자임.

5. 러시아

가. 산업정책

- 러시아 정부는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러시아와 서방국가 간 제재 조치로 인해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자, 2017년 러시아의 산업 위기에 대응하고 자국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 해당 정책은 6대 주요산업(△자동차, △섬유, △수송기계제조, △농업, △도로건설, △식품)과 산업개발펀드 및 신제품 판매에 대한 약 18억달러의 예산을 포함

20) National Energy Storage Mission

- 러시아 정부는 2014년 서방국가의 경제제재, 국제유가 하락, 루블화의 가치절하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대체화 범위 확대 정책을 제시함
 - 수입 대체화 지원 산업은 항공, 방사 전사, 제약, 의료기기, 조선, 자동차 등 22개 분야의 2,240여개 품목을 포함
 - 러시아 정부는 2016년 기준 해당 분야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었고, 2022년까지 100% 자국산화가 될 것으로 예측함

<2017 경제개발 및 경쟁력 강화 예산 비중표>

항목	금액(십억 루블, 비중 %)
수송 및 특수 기계제조	98.98 (67.6%)
제품 생산 및 생산 기술 개발	0.96 (0.7%)
섬유, 수공업 및 경공업	1.73 (1.2%)
화학, 목재, 금속	1.9 (1.3%)
민간산업의 첨단산업 투자지원	22.46 (15.3%)
민간 산업의 연구 개발 진흥	4.9 (3.3%)
산업인프라 구축	4.96 (3.4%)
국가 기술표준 연구	2.9 (2%)
러연방 화학무기 폐기	7.64 (5.2%)
총계	146.43 (100%)

[자료원] KOTRA 해외시장뉴스(2019), 러시아 산업개관

나. 주력산업

1) 자동차 산업

- 러시아 정부의 자동차산업정책의 흐름은 3 단계로 구분됨
 - (1단계)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자동차 현지 생산 능력 유지 및 노후 차량의 교체 기간
 - (2단계) 2005-2015년으로 현지 생산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시함
 - * 러시아 정부는 자동차산업 발전전략으로 2013년 12월 전략 2020을 수립하여, 자동차 및 부품 현지 생산 및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제시함

- (3단계) 2016년 이후 자국 생산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도모, 수입축소 및 수출확대를 목표로 함
 - * 2017년 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을 재정비한 전략 2025를 수립하였는데, 해당 전략은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기술 혁신 및 수출 목적 생산 확대가 추가됨
- 아울러, 교통 인프라, CNG 및 LNG, 스마트 교통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도로인프라 관련, 러시아정부는 교통시스템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도로의 80%를 재정비하는 목표를 수립함
 - 전기차 관련, 2019년 기준 모스크바 기준 2,260개의 충전소 설립을 목표로 한 전기차 충전소 시범사업을 시작. CNG 및 LNG와 관련하여 2020년 기준 2,870개의 가스충전소 설립 목표
 - 아울러, 전략 2025와 러시아의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서 자율 운행 자동차 및 도로 시범사업을 추진 예정. 해당 사업을 위해 모스크바 근교 기술혁신단지에서 시범사업을 개발 중에 있음

<교통 인프라 발전 계획>

구 분	내 용
도로	-2008년 제정된 <2030 교통전략>은 고속도로 네트워크 확충 및 도로 건설과 재정비에 관한 계획을 담고 있음. 2030년 전체 도로대비 80%의 고품질 도로 비중이 목표 -총 22,000km의 연방 고속도로와 12,000km의 지역 국도 건설 및 재정비
전기차 인프라	-정부 전기차 인프라 발전 프로그램의 목표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도시에 80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임. -2017년 현재 모스크바 30개 충전소를 비롯해 전국에 60개의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차용 정비소 등 지원 인프라는 꾸준히 확충될 것
가스 차량 인프라	-2015-2020년 천연가스 운송차량 발전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에 따르면, CNG와 LNG차량용 충전소는 2020년까지 2,870개, 정비소는 1,500개로 증가할 것 -전략 2025에 따르면, 일반 CNG차량용 충전소는 서부 러시아 도로 중심으로 건설될 것이며 LPG차량을 위한 정비 지원 인프라 확충도 계획 중
스마트 무인 자동차 인프라	-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의 'Autonet' 로드맵에 관련 분야 발전 프로젝트가 현재 실행 중. 전략 2025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시험, 가동에 관한 프로그램이 계획 중

[자료원] KOTRA(2017) Global Market Report, CIS지역 자동차 및 부품시장 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 조선기자재 산업

-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를 위한 육성산업으로 내륙 운송선, 내륙 크루즈, 원양어선을 선택함
 - 러시아는 2016년 극동의 즈베즈다 조선소의 현대화를 시작하였으며 2024년 작업 완료 시 러시아 최대 조선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러시아 정부는 민간 선박 비중을 60%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목표를 발표했다
- * 러시아의 경우 2013년 기준 민박 선박 건조 비중이 군용 선박 건조비중보다 높았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군용 선박 건조 비중이 확대됨.

3) 물류 및 유통

- 러시아 정부는 2012~2024년 러시아 화물열차 교체 계획안을 발표
 - 해당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화물칸 기준으로 2018년 기준 4만 3,000개의 신규화물칸을 도입하고, 7만 2,700개의 화물칸을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7년 기준 2만 2,700개의 화물칸을 교체하였고 459개 기관차를 생산함
- '15년 '러시아 강구 및 내륙수로 발전전략 2030 프로그램'을 수립
 - 해당 프로그램은 △내륙수로의 역량 강화, △강구 개발, △주정부의 지원책 확대, △내륙 수로 요금 경쟁력 향상, △내륙 수로를 통한 산업클러스터 개발 등을 포함함
 - 2030년 기준 화물 운송량을 94%, 승객수를 22%, 수로길이를 37%, 창고용량을 118%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기함
- 러시아 정부는 도로 안전점검 및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그램'을 수립함. 34개 도시의 도로 인프라 개선에 11조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

- 러시아 정부는 사회 및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펀드를 활용
 - 2025년 러시아 극동 사회경제개발정책은 150개 프로젝트에 대한 5조 루블 투자 계획을 포함함
 - 러시아 산업 인프라 발전 펀드의 경우, 의료, 운송수단 인프라, 주거지 및 사무실 건설 등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외자 도입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함

6. 브라질

가. 산업정책

- 브라질은 남미 최대의 제조국가로 2016년 기준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GDP의 12.5%를 차지함
 - 산업별 부가가치를 보면, 식품이 2.4%, 코크스, 석유부산물 및 바이오연료가 1.7%, 화학제품이 1.1%를, 금속공학 및 자동차가 각각 0.7%로 나타남
- 브라질은 노동법을 개정하고, 자국 콘텐츠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 환경 개선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강조함
 - 해당법은 쉬운 해고, 노동조합의 권한 축소, 노동소송시 심사 기준 강화, 노사 간 근무시간 협의 가능 등을 포함하는 친기업 성향의 조항 포함
 - 2017년 자동차산업육성정책(Rota 2030), 석유 개발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하며 국산 부품의 의무사용 기준을 완화함
- 투자 확대를 위해 국영회사의 민영화 및 무역협정 체결을 확대
 - 민영화 계획은 브라질의 낙후한 인프라 개선 정책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인프라 사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건설 중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브라질의 주요산업은 철강, 자동차, 석유 가공, 항공기 제조 등이며, 철강의 경우 글로벌 5대 수출국가로 전체 수출의 30% (2017년 기준)을, 자동차의 경우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 최대 수입국은 미국임. 21)

나. 전략산업

1) 자동차부품 산업

- 자동차산업은 브라질의 주력산업으로 2019년 기준 GDP의 4%, 제조업의 22%를 차지함²²⁾
- 2017년 브라질 정부는 에너지 효율 및 안전성 강화, R&D 및 기술 혁신 투자 업체에 대상으로 세금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함
 - (에너지 효율 및 안전성 강화) 브라질 생산 자동차는 라벨링 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하고, 2020년까지 연료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에너지 효율성을 2017년 기준 11% 향상하는데 기여해야 함
 - 아울러, 모든 차량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을 위해, 안전 기능이 강화된 장치로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함
 - (R&D 및 기술혁신)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은 완성차 및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R&D, 기술혁신 관련 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기업 이윤세 감세 등 혜택을 부여함
 - 첨단제조, 연결성, 자동차 엔진 관련 기술, 나노테크놀로지, 자율 차량 및 관련 부품 등 전략제품을 개발하거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추가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자국의 기술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대한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이 브라질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R&D에 투자하는 경우 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

21) PWC(2018), Global manufacturing and Industrialization Summit, The future of industry: Brazil

22)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동향정보 (2019), 브라질 자동차 산업

2) 태양광 산업

- 2012년 브라질국가전력공사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법안이 2016년 발효되며, 태양광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은 2017년 이후 바이오매스, 소수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비슷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지며 경쟁력있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부상함
 - 소형 태양광 발전장치를 사용하여 전락 생산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 이후 남은 전락을 'Credit'으로 환산해 전기요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
 - * 브라질국가전력공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120만 대의 태양광 발전기가 브라질 전역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에너지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것임
 - 한편 브라질의 경우 기술 부족의 문제로 핵심부품인 태양광 전지를 수입하고 있는 등, 관련 장비와 부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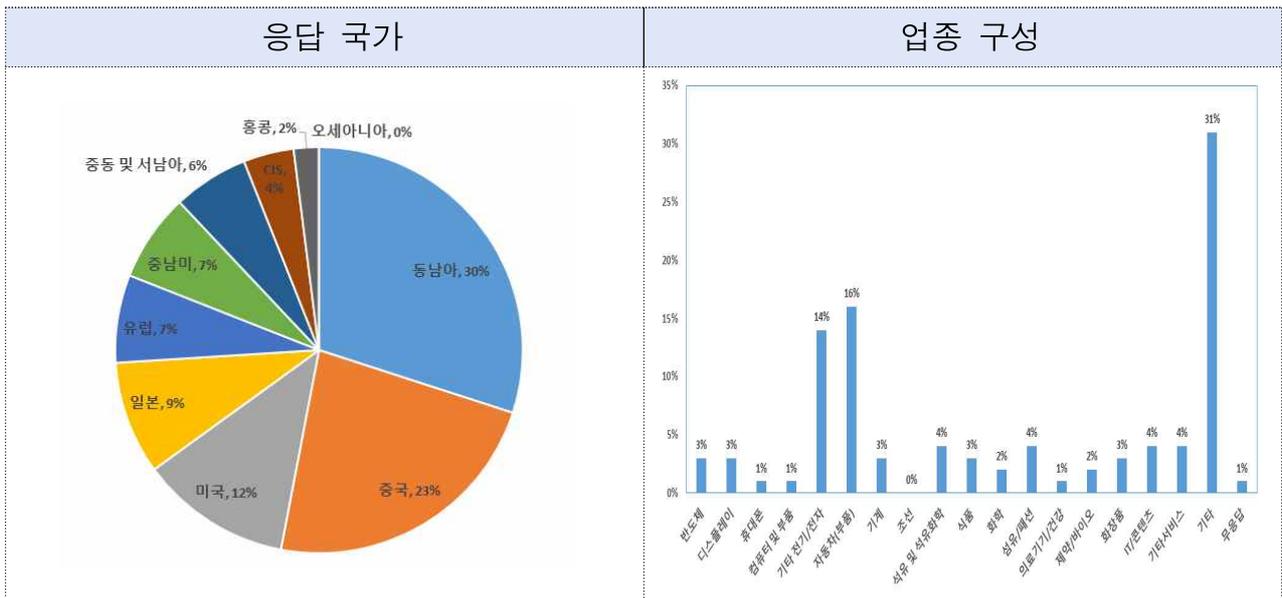
IV 해외 현지법인의 GVC 재편과 대응 설문 결과

1 해외 현지법인 현황과 구조

1. 설문 개요

- KOTRA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 애로 해소 및 지원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조의 변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해외 진출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20.10월)
- (전체 응답 현지 법인수) 총 232개 법인
- (응답 국가) 동남아(30%), 중국(23%), 미국(11%) 순이며 동남아 국가에서는 베트남 15개사, 인도네시아 8개사, 태국 8개사 순

< 설문 응답 국가 및 업종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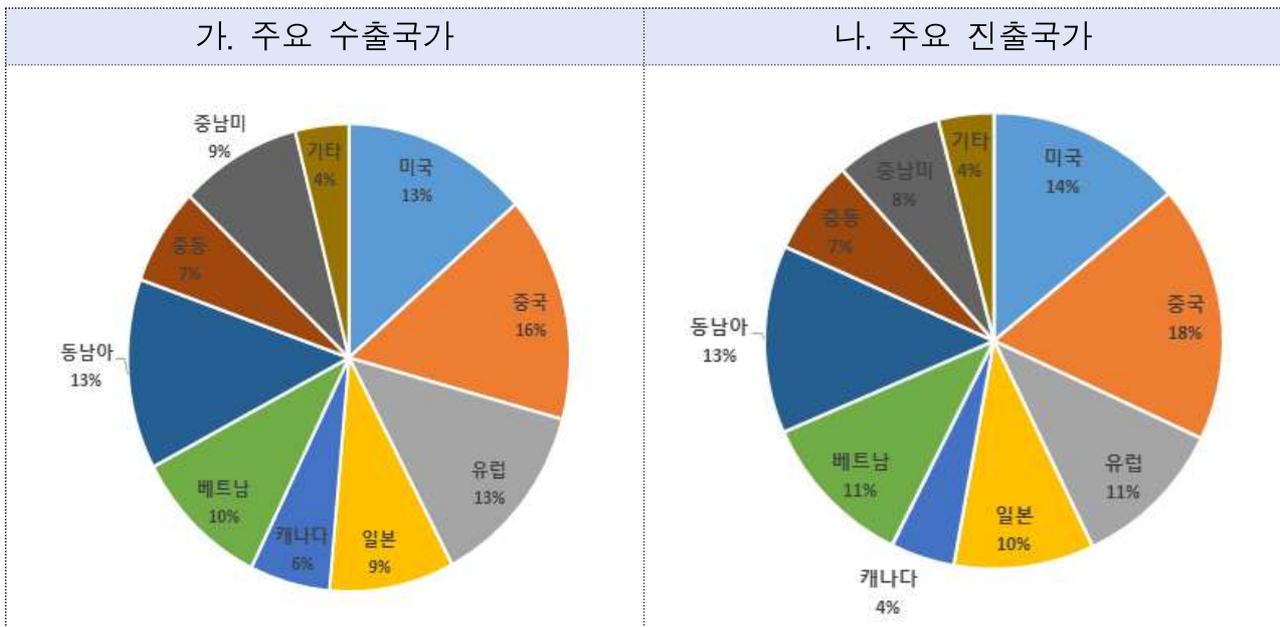


[자료 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 (매출 규모)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 규모는 1억 달러 이상(26%)이 가장 많고, 1천만 달러 이하가 전체 39% 수준, 중간 규모인 1천만 달러에서 1억달러 미만의 기업이 30% 수준으로 고른 분포를 보임

- (고용 규모)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 고용 규모는 50인 미만 법인이 56%로 가장 많고, 그 중 10인 미만 기업의 비중이 30%로 소규모 법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나, 300인 이상 대규모 현지 법인도 24% 수준으로 높음
- (주요 수출 및 진출국) 해외 현지 법인의 주요 수출국 및 진출 국가의 구성은 단일 국가로는 중국(15.7%/18.2%), 미국(13.6%/13.8%) 순이지만, 지역으로는 베트남을 포함하면 동남아시아가 가장 주요한 수출 및 진출 국가임(23.2%/24.4%)

< 주요 수출 국가 및 진출 국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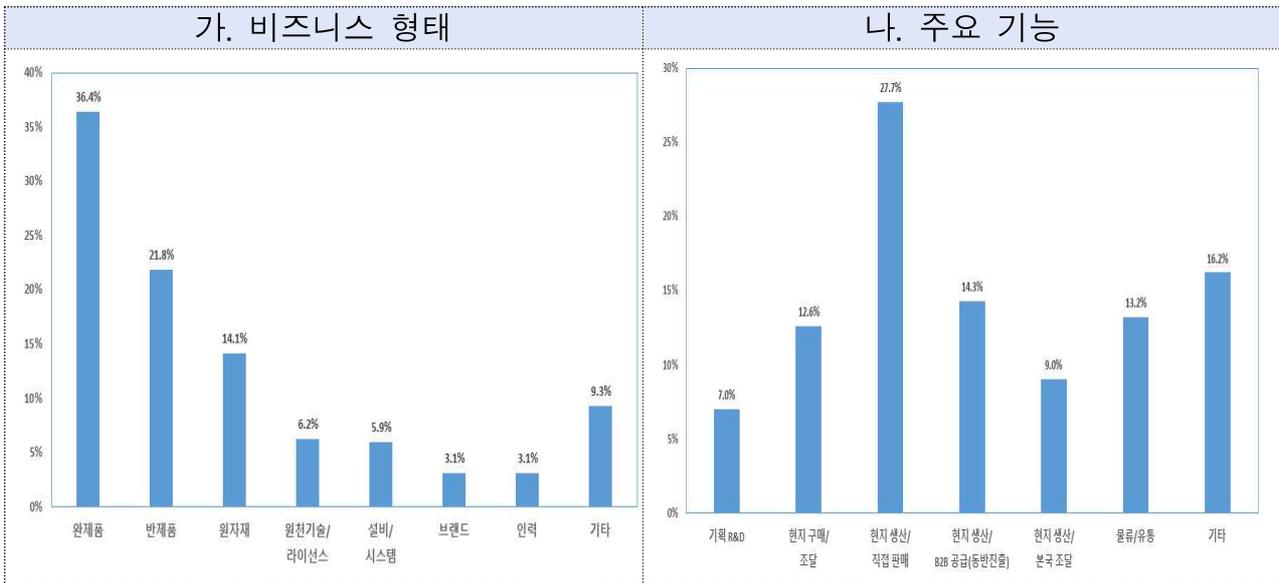
[자료 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2. 해외 비즈니스 구조

- 조사에 응답한 해외 진출법인들의 주요 사업형태는 완제품과 반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이 절반 이상이며,
- 현지 생산을 하는 법인 중에서는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B2B방식 공급 순임
 - (현지 법인의 기능) 현지생산 및 직접 판매(27.7%), 기타 (16.2%), 현지 생산 및 B2B 공급(동반진출) 순, 기타 항목 중 현지 마케팅과 연락 사무소의 비중이 가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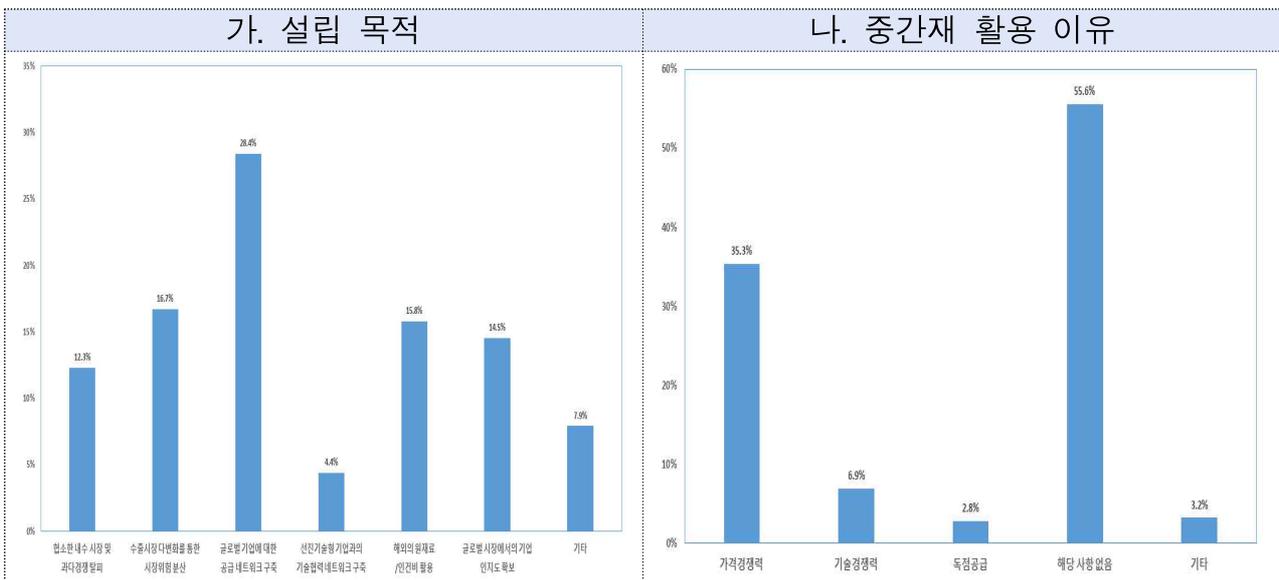
- 현지법인을 설립한 목적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공급 네트워크 구축(28.4%)’이 가장 높으며,
- 다음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시장위험 분산(16.7%)과 원재료/인건비 활용(15.8%) 순이며, 해외 중간재를 활용 이유는 가격 경쟁력 요인이 가장 높음

<해외 현지법인 비즈니스 구조>



[자료 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해외 현지법인 설립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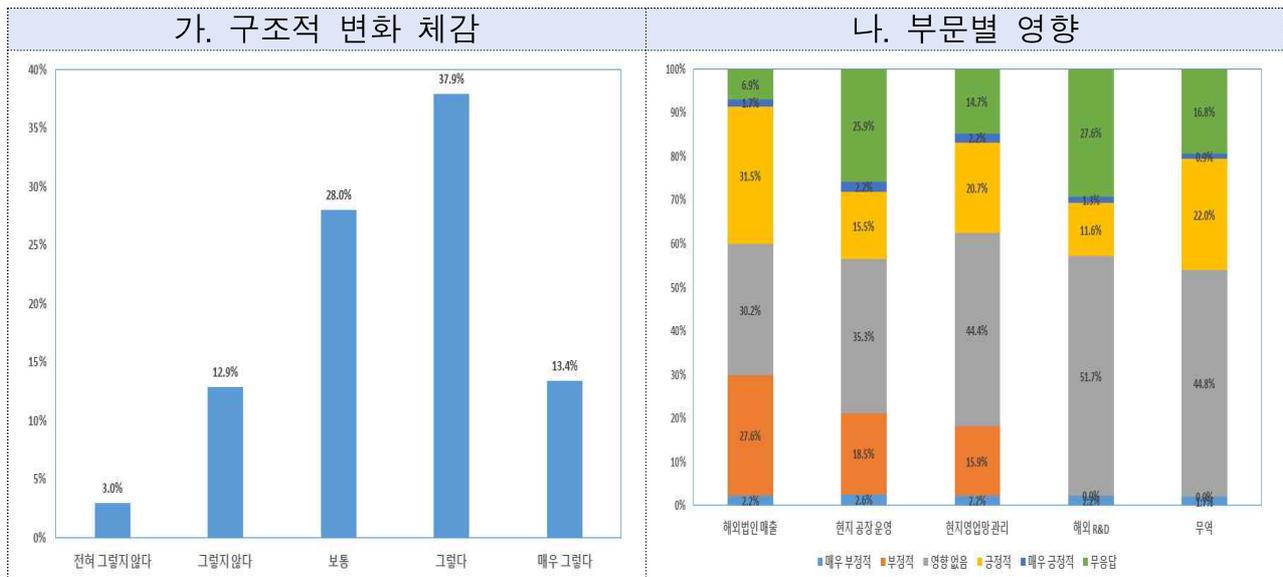
[자료 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2 해외 현지 사업의 구조 변화와 대응

1. 최근 3년간 해외 사업 구조 변화와 대응

- (최근 3년간 구조 변화 체감) 해외 현지법인이 최근 3년간 해외 사업에서 구조 변화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1.3%)으로 구조 변화에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부문별로 보면 매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다른 부문은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
 - 해외사업에서 구조변화의 부문별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지 매출과 해외 R&D 및 무역은 최근의 구조 변화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현지 공장 운영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최근 3년간 해외 사업의 구조적 변화 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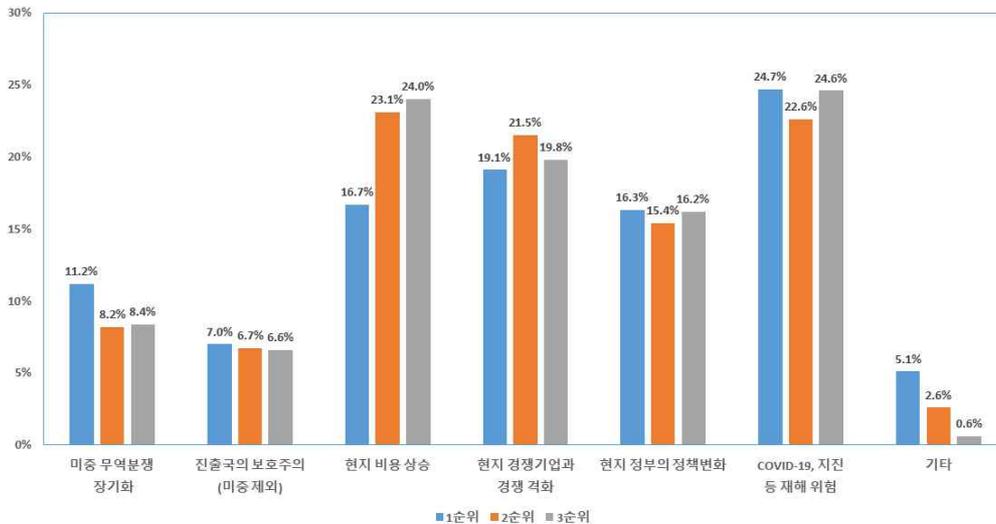


[자료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 (구조변화의 부정적 요인) 해외 현지법인이 체감한 구조 변화의 부정적인 요인은 1순위 기준으로 코로나19나 지진 같은 ‘재해위험(24.7%)’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했으며,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현지 경쟁기업과의 경쟁 격화(19.1%)’와 ‘현지 비용 상승(16.7%)’이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응답

- 특징적으로 ‘현지 정부의 정책변화(16.3%)’도 ‘현지 비용 상승(16.7%)’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으며, 미·중 무역분쟁을 제외한 ‘진출국의 보호주의(7.0%)’ 응답까지 고려하면 진출국의 정책요인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됨
- (1순위) 코로나19, 지진 등 재해 위험(24.7%), 현지 경쟁기업과 경쟁 격화(19.1%), 현지 비용 상승(16.7%) 순
- (2순위) 현지 비용 상승(23.1%), 코로나19, 지진 등 재해 위험(22.6%), 현지 경쟁기업과 경쟁 격화(21.5%)
- (3순위) 코로나19, 지진 등 재해 위험(24.6%), 현지 비용 상승(24%), 현지 경쟁기업과 경쟁 격화(19.8%) 순

<최근 3년간 해외사업에서 구조적 변화의 부정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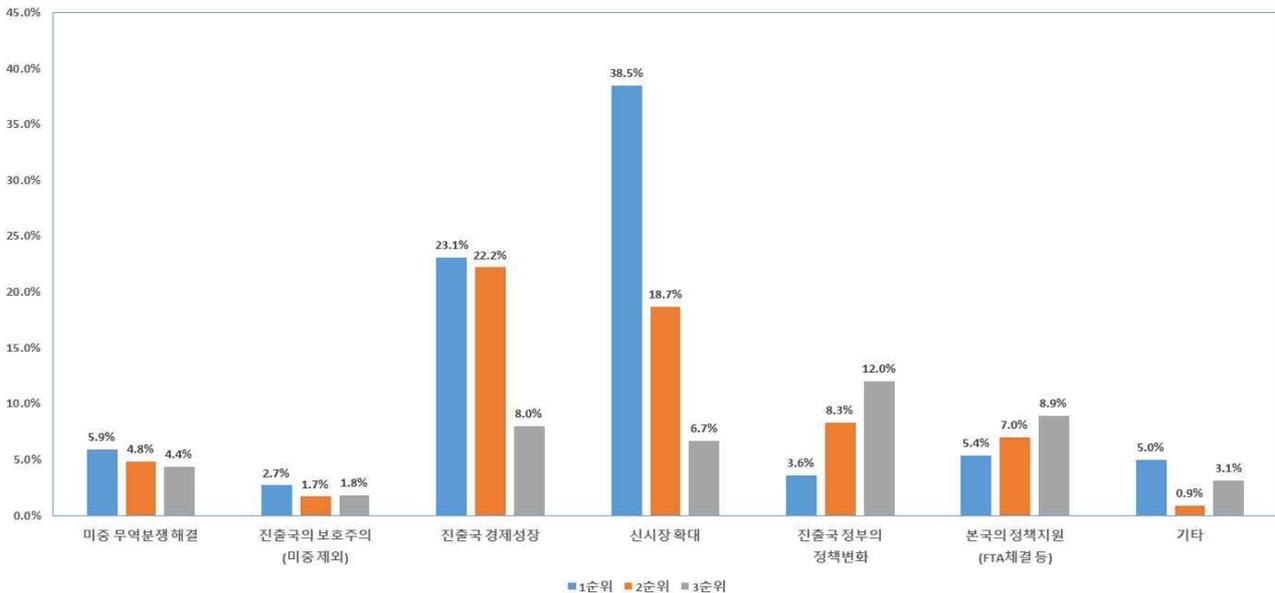


[자료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 (구조변화의 긍정적 요인) 해외 현지법인이 체감한 구조 변화의 긍정적인 요인은 1순위 기준으로 ‘신시장 확대(38.5%)’가 가장 크며 진출국 경제성장(23.1%)과 ‘미·중 무역분쟁 해결(5.9%)’ 순으로 응답
- 특징적으로 ‘현지 정부의 정책변화(16.3%)’도 ‘현지 비용 상승(16.7%)’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으며, 미·중 무역분쟁을 제외한 ‘진출국의 보호주의(7.0%)’ 응답까지 고려하면 진출국의 정책요인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됨

- (1순위) 신시장 확대(38.5%), 진출국 경제성장(23.1%), 미중 무역분쟁 해결(5.9%) 순
- (2순위) 진출국 경제성장(22.2%), 신시장 확대(18.7%), 진출국 정부의 정책변화(8.3%) 순
- (3순위) 진출국 정부의 정책변화(12%), 본국의 정책지원 (8.9%), 진출국 경제성장(8%)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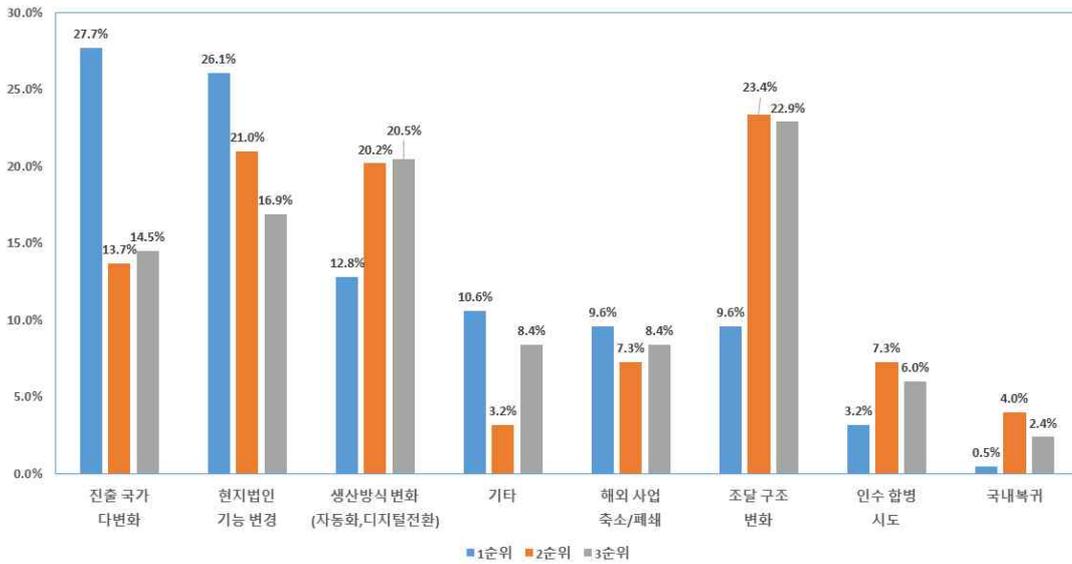
<최근 3년간 해외 사업에서 구조적 변화의 긍정적 요인>



[자료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 (구조 변화 대응 정책) 해외 현지법인들은 최근 3년간의 해외 사업에서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실시한 정책들은 1순위 기준으로 ‘진출 국가 다변화(27.7%)’와 ‘현지법인 기능 변경(26.1%)’을 응답하였고 ‘생산방식 변화(12.8%)’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 전체적으로 보면 현지 법인들을 주로 현지법인의 기능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진출 국가 다변화’나 ‘조달 구조 변화’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급망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

< 구조 변화에 대해 실시한 대응 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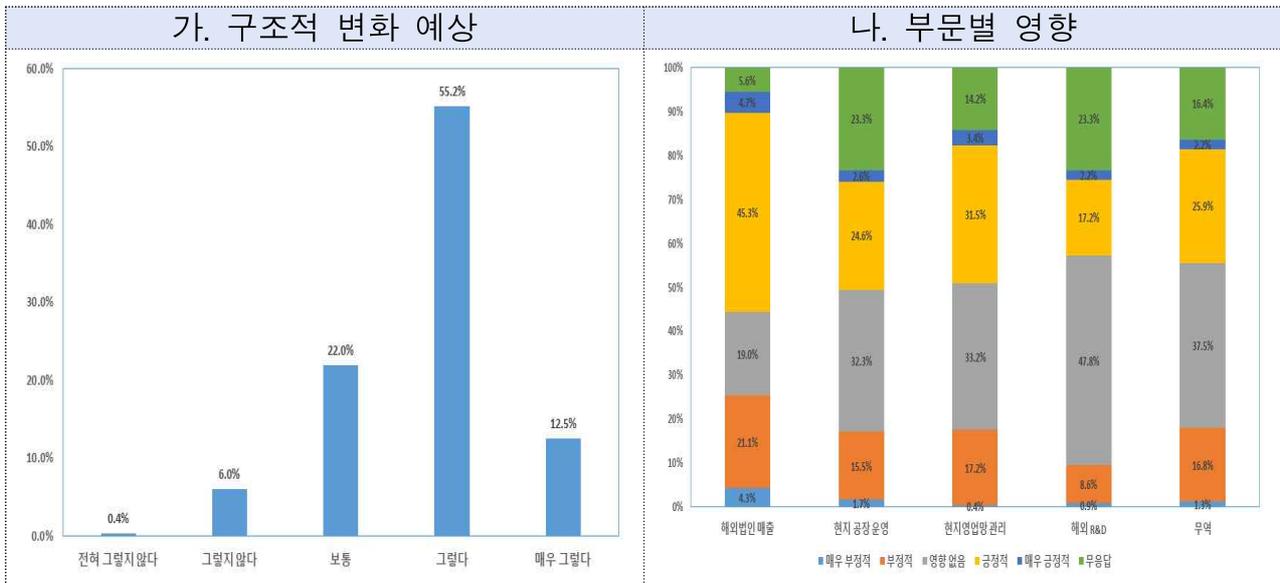


[자료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2. 향후 3년간 구조 변화 예상과 대응

- 해외 현지법인이 향후 3년간 해외사업에서 구조 변화를 예상하는지에 대해 과반 이상(67.2%)이 변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 기업 활동 부문별로 보면 모든 부문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부정적 영향 예상보다 높으며, 특히 매출 증가를 예상한 비중이 높음
 - 해외사업에서 구조변화의 부문별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을 제외하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 응답이 많았지만,
 - 현지 법인 매출에 대해서는 절반(50.0%)이 매출 증가를 예상했으며, 다음으로 현지 영업망 관리에서도 긍정적 영향(34.9%)을 예상한 기업 비중이 높음
 - 다만,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응답은 절반 이상이 향후 3년간 일어날 구조 변화가 법인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함
 - 현지 공장운영과 무역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구조변화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 현지 R&D의 경우는 긍정적이 예상이 높으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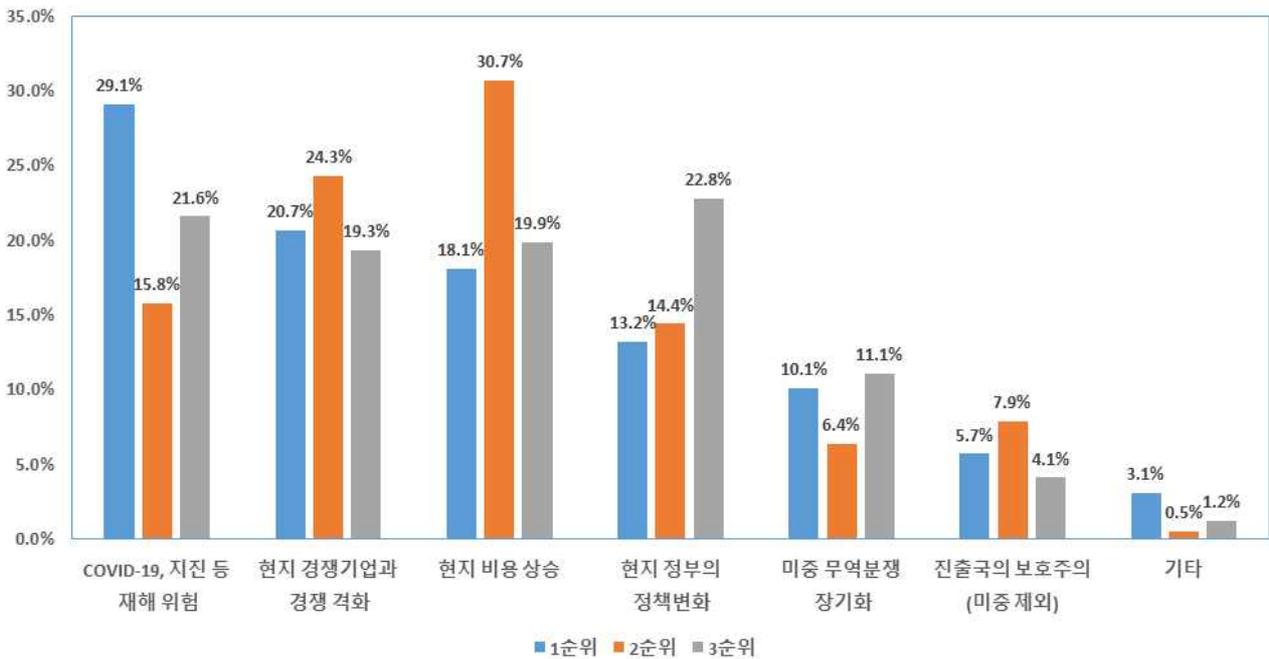
<향후 3년간 해외 사업의 구조적 변화 예상>



[자료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 (구조 변화의 부정적 요인 예상) 해외 현지법인이 예상하는 구조 변화의 부정적인 요인은 1순위 기준으로 코로나19나 지진 같은 ‘재해위험(29.1%)’이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현지 경쟁기업과 경쟁 강화(20.7%)’, ‘현지 비용 상승(18.1%)’이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예상함
 - 특히, 진출 비중이 높은 동남아 국가들에 진출한 현지 법인에서 ‘현지 비용 상승’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임금 상승 등의 요인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1순위) 코로나19, 지진 등 재해 위험(29.1%), 현지 경쟁기업과 경쟁 강화(20.7%), 현지 비용 상승(18.1%) 순
 - (2순위) 현지 비용 상승(30.7%), 현지 경쟁기업과 경쟁 격화(24.3%), 코로나19, 지진 등 재해 위험(15.8%) 순
 - (3순위) 현지 정부의 정책변화(22.8%), 코로나19, 지진 등 재해 위험(21.6%), 현지 비용 상승(19.9%)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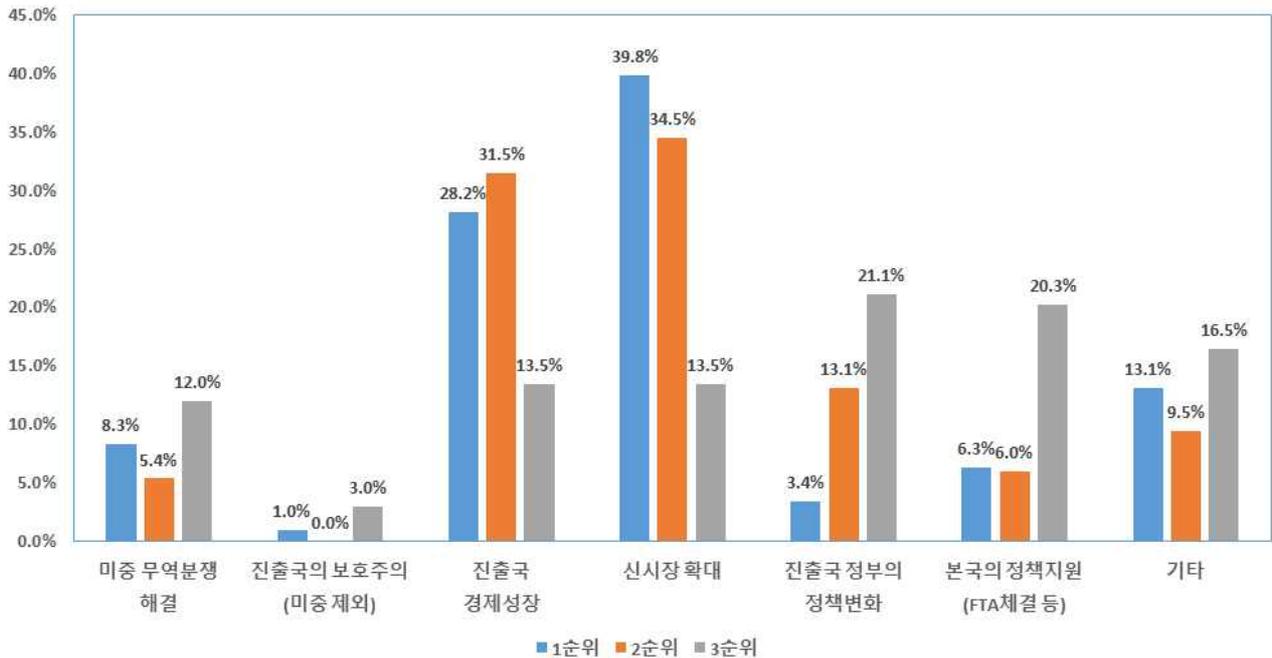
<향후 3년간 해외 사업에서 구조적 변화의 부정적 요인>



[자료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 (구조 변화의 긍정적 요인 예상) 해외 현지법인이 예상하는 구조 변화의 긍정적인 요인은 1순위 기준으로 ‘신시장 확대(39.8%)’로 가장 높으며,
- 다음으로 진출국 경제성장(28.2%)’으로, 전체적으로 진출국 및 본국의 정책에 대한 기대 또한 높음
 - 특징적으로 미국에 진출한 현지 법인들은 절반이상이 ‘신시장 확대’를 긍정적인 요인으로 예상하여 ‘마중 분쟁해결’보다도 훨씬 높게 응답
 -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진출국 정부의 정책변화(3.4%)’보다 FTA 체결과 같은 ‘본국의 정책지원(6.3%)’이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응답하여, 해외 법인들의 정책 수요 조사와 정책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순위) 신시장 확대(39.8%), 진출국 경제성장(28.2%), 기타(13.1%) 순
 - (2순위) 신시장 확대(34.5%), 진출국 경제성장(31.5%), 진출국 정부의 정책변화(13.1%) 순
 - (3순위) 진출국 정부의 정책변화(21.1%), 본국의 정책지원(20.3%), 진출국 경제성장/신시장 확대(13.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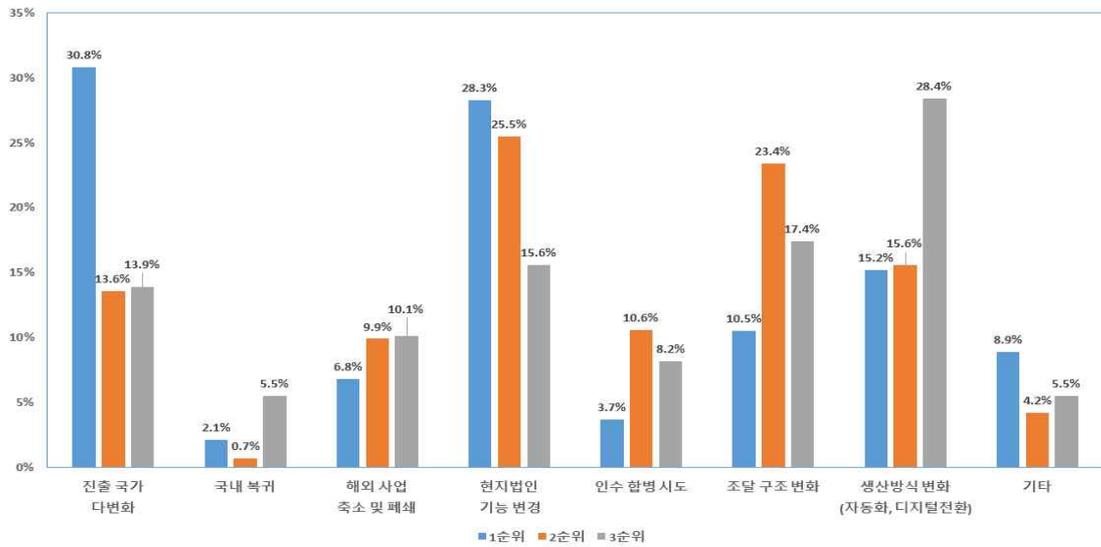
<향후 3년간 해외 사업에서 구조적 변화의 긍정적 요인>



[자료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 (구조 변화에 대응 예상 정책) 해외 현지 법인들은 향후 3년간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실시할 정책으로 1순위 기준 ‘진출 국가 다변화(30.8%)’와 ‘현지법인 기능 변경(28.3%)’을 응답하였고, ‘생산방식 변화(15.2%)’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 예상되는 해외사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진출 국가를 다변화하고 현지법인의 기능을 변경할 뿐 아니라, 생산방식을 변화하고 조달구조를 변화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사슬 구조의 변화가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됨
- (1순위) 진출 국가 다변화(30.8%), 현지법인 기능 변경(28.3%), 생산방식 변화(15.2%) 순
- (2순위) 현지법인 기능 변경(25.5%), 조달 구조 변화(23.4%), 생산방식 변화(15.6%) 순
- (3순위) 생산방식 변화(28.4%), 조달 구조 변화(17.4%), 현지법인 기능 변경(15.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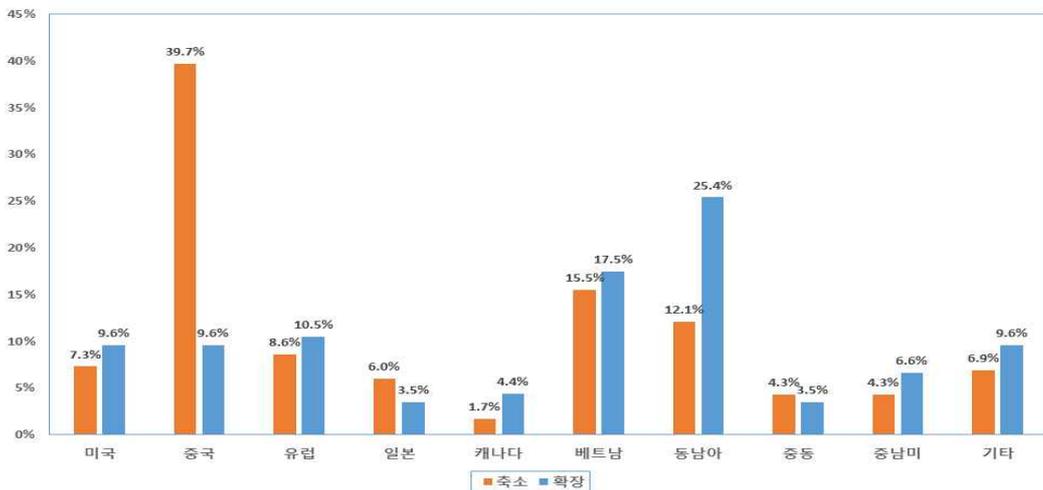
<향후 3년간 현지법인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 정책>



[자료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 (현지 법인 축소 확장 예상) 향후 3년간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현지 법인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응답을 보면, 중국지역을 축소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장 움직임에 대한 답변이 뚜렷하게 드러남
 -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법인을 확장 하겠다는 응답이 축소하겠다는 응답보다 소폭이지만,
 - 상대적으로 높아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력시장에서의 해외 사업 확대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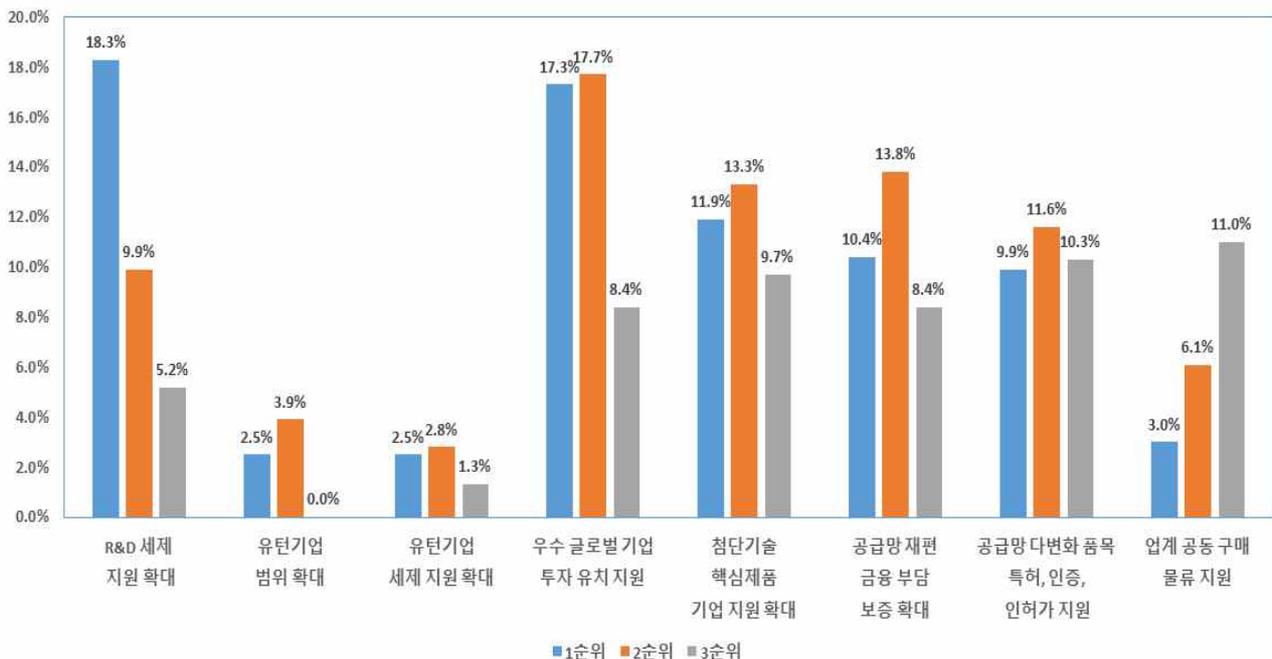
<현지법인의 축소/확장 예상 지역>



[자료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 (글로벌 공급망 관련 정부 정책 수요)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 해외 법인들은 1순위 기준 'R&D 세제 지원 확대(18.3%)'를 가장 많이 요청했고, 다음으로 '우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지원(17.3%)'과 '첨단기술 핵심제품 기업 지원 확대(11.9%)' 순
- 전체적으로 '우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지원'과 '첨단기술 핵심제품 기업 지원 확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즉, 다수의 현지 법인들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됨
- (1순위) R&D 세제 지원 확대(18.3%), 우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지원(17.3%), 첨단기술 핵심제품 기업 지원 확대(11.9%) 순
- (2순위) 우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지원(17.7%), 공급망 재편 금융 부담 보증 확대(13.8%), 첨단기술 핵심제품 기업 지원 확대(13.3%) 순
- (3순위) KOTRA 등 해외 진출 거점 확충(16.8%), 디지털 기술 활용 및 플랫폼 지원(14.2%), 업계 공동 구매 및 물류지원(11%) 순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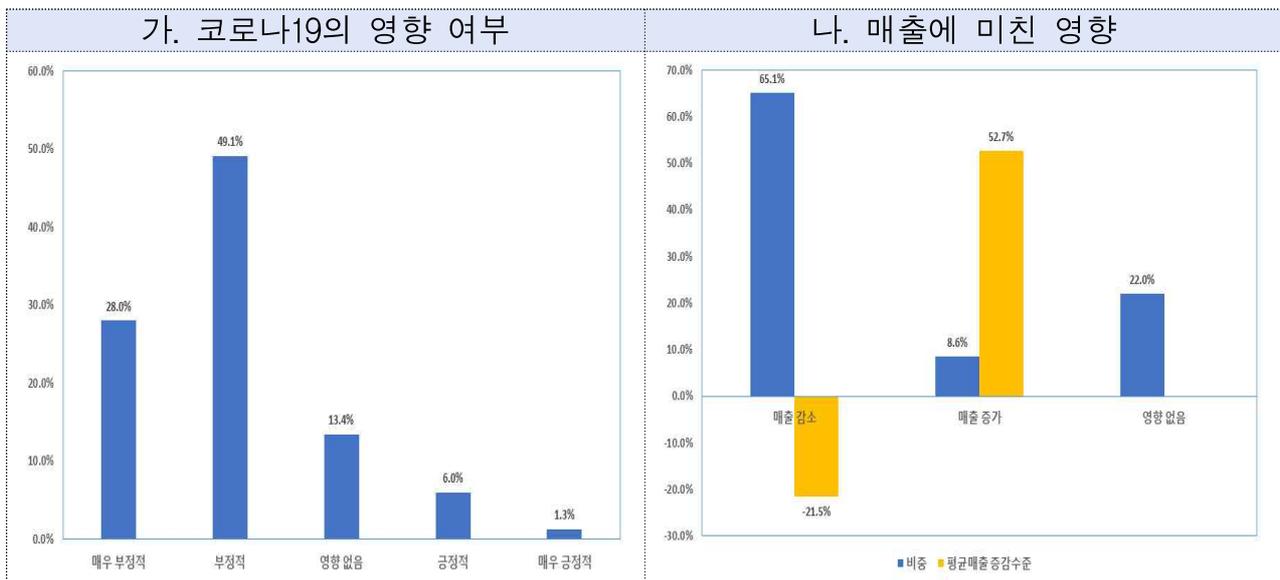


[자료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3 | 코로나19 사태의 현지법인 영향과 대응

-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해외 현지 법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특히 매출에서는 65.1%가 부정적 영향에 응답했으나 일부는 매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응답도 존재
 - 대부분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현지법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나,
 - 부정적 영향 비율이 가장 작은 국가로는 동남아 일부 국가 (말레이시아(67%), 태국(75%))와 중국(69%), 일본(71%) 등이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지법인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 (65.1%)이 가장 많으며, 영향 없음(22%)이나 매출 증가(8.6%) 순으로 응답했고, 매출의 평균 감소 수준은 21.5% 정도로 집계됨
 - 특징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현지법인의 해외사업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종은 의료기기 관련 업종뿐 아니라 전기/전자나 IT서비스업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
 - 긍정적인 응답의 지역별 구성은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 외에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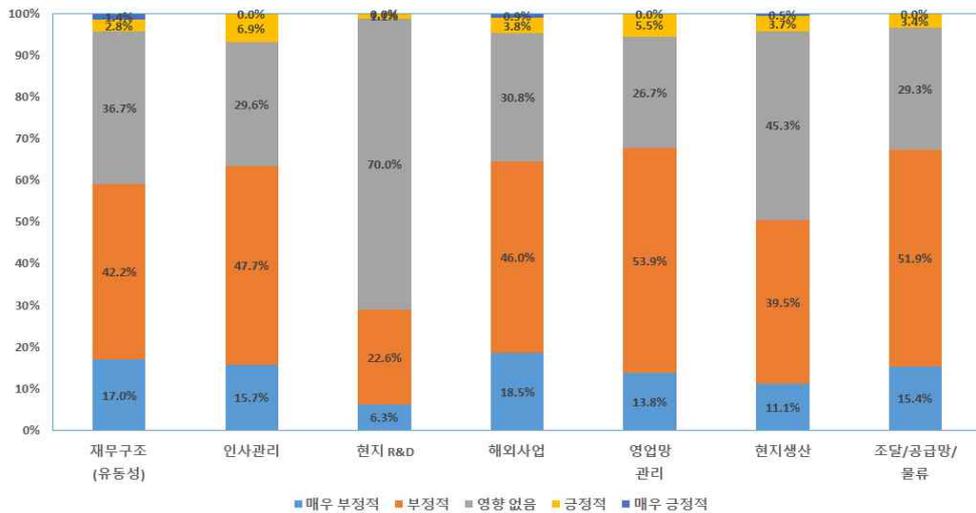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가 현지법인에 미친 영향>



[자료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 (코로나19 사태가 현지법인의 경영활동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현지 법인들은 △현지 영업망 관리와 △조달/공급망/물류, △해외 사업, △재무구조와 인사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이 컸으나,
- 현지 생산이나 현지 R&D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응답
 - (재무구조) 부정적(42.2%), 영향 없음(36.7%), 매우 부정적(17%) 순으로 부정적 응답을 한 국가 중 자본 규모가 큰 미국, 일본, 중국 등과 중동 국가들은 50% 이하의 응답률을 보임
 - (인사관리) 부정적(47.7%), 영향 없음(29.6%), 매우 부정적(15.7%) 순으로 중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타 국가에 비해 인사관리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동남아 국가에서 인사관리에 부정적 응답이 많음
 - (현지 R&D) 영향 없음(70%), 부정적(22.6%), 매우 부정적(6.3%) 순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가 R&D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
 - (해외 사업) 부정적(46%), 영향 없음(30.8%), 매우 부정적(18.5%) 순으로 중국은 전체 응답 중 50% 이상이 부정적 영향(부정적, 매우 부정적)에 응답했고, 멕시코, 러시아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영업망관리) 부정적(53.9%), 영향 없음(26.7%), 매우 부정적(13.8%) 순으로 영업망 관리는 부정적 영향이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 중국의 경우 54%가 영향 없음, 미국의 경우 54%가 긍정적 영향(긍정적, 매우 긍정적)에 응답하여 지역별 격차가 큼
 - (현지생산) 영향 없음(45.3%), 부정적(39.5%), 매우 부정적(11.1%) 순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향 없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중국 응답자중 50%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함
 - (조달/공급망/물류) 부정적(51.9%), 영향 없음(29.3%), 매우 부정적(15.4%) 순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정적이라고 응답
 - 산업 구조상 원유 수출이 많은 중동 국가의 경우 영향 없음과 긍정적 응답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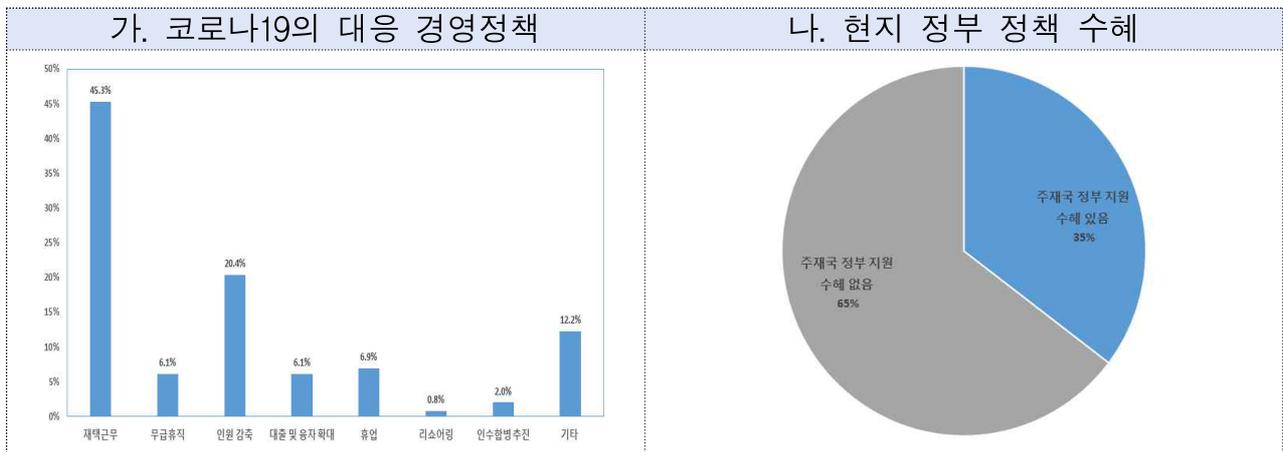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가 현지법인의 경영활동에 미친 영향>



[자료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 **(코로나19 사태 대응 경영 정책)**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법인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영 정책으로는,
- 재택근무(45.3%), 인원 감축(20.4%), 기타(12.2%) 순이며 기타는 탄력/단축 근무 및 방역 정책 비중이 큼
- 코로나19 사태 현지법인이 주재국 정부의 지원 정책을 수혜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없음(64.7%)로 응답했으나,
- 유럽 지역은 약 52%가 주재국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지원내용은 세제 혜택이나 장기 저금리 대출이 많았으나, 고용 유지 지원금이나 직접적인 인건비를 지원받은 법인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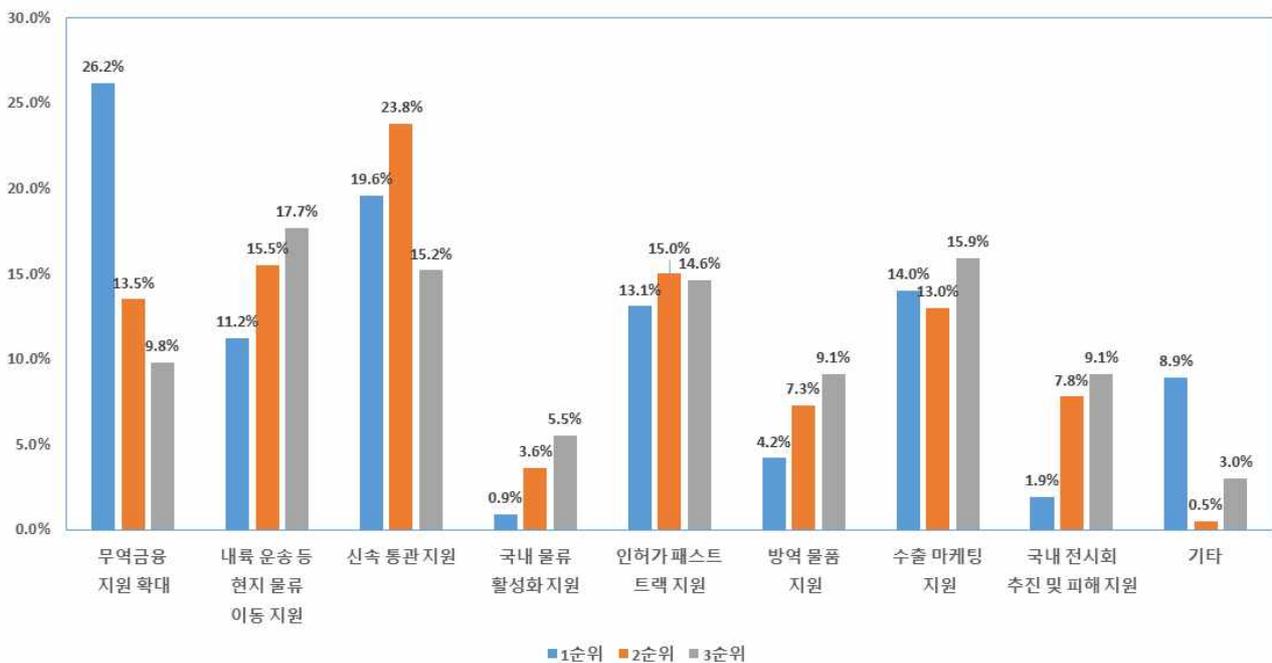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로 현지법인이 실시 중인 경영 정책>



[자료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수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지 법인들의 해외 사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에서는,
- 1순위 기준으로 무역금융 지원의 확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속 통관 지원과 수출 마케팅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음
 -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해 무역 금융지원 같은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 코로나19 사태가 일정 정도 관리되는 수준에 접어들면 신속 통관 지원, 인허가 패스트 트랙, 현지 물류 지원 등 물류나 통관 등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예상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중 해외사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자료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V

결론

1

핵심 산업의 협력 가능성

1. 핵심 산업의 협력 가능성 모색

가. 경쟁력에 기초한 산업별 협력 가능성

- 개별 산업의 현재 상황에 맞는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종별 특성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협력 방향 모색 필요
 - 예를 들어, △글로벌 가치사슬이 광범위하게 구축된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 △향후 디지털 전환 혹은 비대면 경제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교역 확대가 예상되는 산업, △미-중 무역 분쟁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 등의 분석 필요
 - 또한, 이후 분석할 개별국가의 산업 정책을 반영한 협력방안과의 연계 역시 중요
- 식음료, 가축, 제지, 플라스틱, 목재 산업
 - 경쟁력을 갖지 못한 산업과 특히 추세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의 경우 대부분 자본집약도나 기술집약도가 높지 않은 산업으로 자체적 경쟁력 복원은 쉽지 않음
 - 개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협력 확대는 통상전략 속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듯이,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 기초한 협력 강화가 필요
 -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 확대나 무역수지 확대를 추구하기보다는, 이들 국가에 필요한 기술이전이나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 확대 등의 방식으로 협력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 이 과정에서 소규모 영세 기업들은 외국진출이나 협력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등도 고려할 필요

- 다만, 이러한 산업 중 우리나라 핵심산업의 공급망이나 가치사슬 상 중요한 부문을 도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산업별 발전정도와 관계 없이 개별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대부분 신산업분야나 첨단산업 그리고 자본집약적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여기에서 언급한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을 찾기는 어렵지만, 개도국 입장에서는 경공업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도국과의 협력 의제로 설정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이 존재
-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도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가 재역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접근 또한 고려되어야 함

○ 섬유산업

- 섬유산업은 의복이나 신발등의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해당 최종재 생산에서 우리나라가 갖는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 전방산업보다는 섬유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협력방안을 고려해야 함
- 특히, 최종재를 주로 생산하는 동남아시아에서 섬유산업의 경쟁은 중국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범용 섬유산업보다는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에 집중할 필요
- 특히, 섬유산업은 많은 경우 다량의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산업으로 향후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친환경 방식의 생산기술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우리가 분석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은 향후 주력산업으로 섬유산업을 선정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재 상품인 의복과 신발등이 현재 해당 국가의 생산, 수출, 고용, 부가가치에서 핵심산업으로 섬유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

○ 정유 및 화학산업

- 정유와 화학산업은 현재 중요한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이며, 글로벌 차원에서도 성장에 필수적인 산업
- 그러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는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면,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하는 분야
- 실제 글로벌 석유 및 정유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의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석유화학에 집중하고, 중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영역의 확대를 추진
-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유 및 화학기업들도 전략적인 대외협력을 추진해야 함.
- 우선 해당 부분 기술선진국과는 그들이 구축하는 새로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의 확보가 필요
- 향후 자국의 주력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화등을 추구하는 중국을 포함하여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과는 공동기술개발등의 방식으로 자체적인 관련 산업 내 기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을 추진하는 베트남, 인도 등의 개도국과는 현단계에서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을 하되,
- 협력과정에서 경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정유부문의 협력도 동반 추진할 필요

○ 전자광학, 운송기기, 기계

- 우리의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동 분야에서는 주도적인 글로벌 협력 전략의 모색이 필요
- 글로벌 협력 전략은 첫째,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치 공고화, 둘째,우리가 주도하는 지역 생산네트워크를 구축, 셋째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한 미래 산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넷째,개도국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협력 등으로 구분 가능

- 글로벌 생산망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높음*
- * 예를 들어 미래차의 경우 친환경 자율주행이 큰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이에 기초하여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 즉, 배터리, 수소에너지 등의 미래 자동차 에너지 부분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주요 산업국가들인 미국, 일본, 독일 등과의 적극적인 기술 협력을 추진
- 필요에 따라서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 합병하는 전략 역시 해당 산업내 주요 기업이 추진해야 할 전략
- 이러한 전략은 우리가 산업발전 과정에서 가져왔던 Catch-up 전략이 선도자가 대부분의 이익을 독점하고 기술발전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적합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임
-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주도적 구축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외환경과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
- 이번 정부 들어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어느 정도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아세안 내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 문화적 부분에서 확대되었으며,
-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해당지역내에서 자체적인 생산네트워크의 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들 지역은 시장으로서의 잠재성도 클 뿐 아니라 향후 주요 시장인 미국, 중국, EU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베드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음
- 실제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은 ICT, 자동차, 기계등을 자신들의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고 발전계획을 수립 중
- 미래 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은 다시 두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 첫째는 첨단 기술의 개발을 주요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둘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 표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

- * 예를 들어 미래차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5G의 상용화를 가장 먼저 추진한 우리나라로서는 5G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아세안 개도국으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장내에 입지를 공고히 해야 함
-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산업화 지원은 해당 국가들의 수요에 입각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 * 대부분의 개도국이 자국발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최근 글로벌 흐름을 반영하여 현 시점에서 달성이 어려운 첨단기술등의 과제를 제출
- 그러나 많은 개도국에서는 첨단부분에 대한 준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산업화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임
- 대표적으로는 기계 산업등과 같은 산업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는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단기적인 이익의 추구보다는 협력 부문의 확대 그리고 이러한 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산업화 지원을 통해 개선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에서의 해당 국가로의 진출 및 협력에 도움
- 특히, 협력을 통한 해당국가들과의 신뢰 강화는 우리가 핵심산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내 생산네트워크의 구축에도 긍정적 효과

2 해외 산업정책에 기초한 협력 가능성

1. 주력시장의 산업정책과의 연계

- 미래산업 핵심 역량의 강화
 -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산업정책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는 미래산업의 핵심 역량 강화
 - 주요국들은 ICT 및 디지털 산업, 바이오 및 의료, 친환경 에너지 등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선정

- 특히, 중국뿐 아니라 이전까지 국가의 산업발전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왔던 미국을 비롯하여 EU와 일본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정책을 입안

○ 자국내 산업 활성화 추진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자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은 미-중간의 무역분쟁을 거쳐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는 경향
- 미국, EU, 일본의 경우는 해외진출 자국기업의 국내복귀 혹은 지역내 복귀(Reshoring or Near shoring)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Reshoring Initiative(미국), Eurofound(EU) 등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리쇼어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경향은 미래산업과 연관되는 부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독려되고 있으며,
-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안보와 의약부문은 이러한 추세가 공급망의 독자적인 구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다만, 중국의 경우는 공급망 내부화를 위한 리쇼어링 경향 보다는 외국기업들의 중국에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도입 중

○ 환경관련 정책의 부상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화되었던 글로벌 환경 이슈가 최근 다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 실제 EU 등에서는 기후문제 대응을 산업전략의 핵심적 이슈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 중

2. 신흥국의 산업정책과의 연계

- 미래산업과 전통적 주력산업의 조합을 통한 미래비전의 제시
 - 주요국의 산업정책이 미래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신흥국의 산업정책은 미래산업에 대한 열망을 표현함과 동시에,
 - 현재 주력산업에서 자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 제시됨
 - 신재생에너지, 로봇, ICT 등 미래에 핵심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동차, 조선, 물류 등 현재 주력산업의 발전 정책을 주요 어젠더로 설정하고 추진
- 산업발전 정책 추진에 외국인 투자는 필수적
 - 신흥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는 핵심정책으로 기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술의 이전이 함께 이루어짐
 - 현재 주요 신흥국이 제출하고 있는 주요 산업별 발전정책이나 기간 인프라의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러한 예산의 대부분은 외국인투자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
 - 실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산업발전은 외국인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의 주요 신흥국을 포함한 개도국으로의 진출은 매우 빠르게 확대

3. 산업별 협력가능성 모색

- 주요국과의 경쟁과 협력 공존
 - 미국, 일본, EU 및 중국의 산업발전정책은 우리나라의 정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협력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결국 상호 전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부분적인 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력산업과 분야를 선정하고 협력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

- 우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족한 기술이나 생산능력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수·합병 등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도 유효
 - 반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분야인 바이오, 환경, 지식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주요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고려
 -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기초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무역이론에서 설명하는 교역 국가간 상호 파레토 개선이 일어나는 비교우위 이론은 단기적으로는 현실설명력에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 점점 주도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혹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주요신흥국과는 상호 교류확대를 확대하는 전략 추진**
- 주요신흥국과의 협력 전략 수립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중장기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임
 - 주요신흥국과의 교역 및 투자를 통해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
 - 주요국과의 협력과는 다른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주요국과의 관계와는 다르게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전면적으로 발생하기 않기 때문이며, 상호 보완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
 - 그러므로 주요신흥국이 필요로하는 분야 기계, 섬유, 정유 등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경쟁력을 갖춘 부분에서 해당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한 협력을 추진하고,

-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우리의 주력산업과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 해당국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전략을 통해 지역 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우리의 표준을 지역 내 표준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이 필요
- 또한 무역, 투자 뿐 아니라 문화, 정치, 외교 분야의 협력을 확대가 필요하고, 이러한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적 교류 등의 확대도 적극 추진해야 함 <끝>

참고문헌

김동수(2020) “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출범과 의의” 중국산업경제브리프 통권 74호, 산업연구원

김재덕, 홍성욱, 김바우, 강두용, 김혁중 (2014) 국제가치사슬 구제에서 본 산업별 경쟁력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4-701, 산업연구원.

김재덕, 홍성욱, 박근형 (2018)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조의 변화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보고서 2018-3, 한국은행 경기본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9),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한태 수교 6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신남방정책 협력과제

산업연구원(2016), 산업브리핑, 중국제조2025 추진과정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세계경제사회연구원(2017) 베트남 산업발전전략과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정책 방향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9), 국외 바이오 정책동향

일본 통상백서 202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동향정보 (2019), 브라질 자동차 산업

KOTRA(2019), 국별 진출전략 베트남

KOTRA 해외시장뉴스(2019) , 러시아 산업개관

KOTRA(2017) Global Market Report, CIS지역 자동차 및 부품시장 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한국무역협회(2018), 최근 러시아 경제동향 및 한·러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8), 중국 전략성신홍산업 육성정책과 특허동향 분석 및 시사점

한국토지주택공사, 베트남 산업단지개발 진출전략 수립

AI Hub(2020)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최신 정책 동향

KIAT 산업기술정책 브리프(2017) 인도의 국가혁신전략: 기술비전 2035, 미래 산업정책 및 제조업 육성 정책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태국의 경제발전정책과 한·태국 협력 확대 방안

European Commission, Strengthening Strategic Value Chains for a future-ready EU industry

European Commission(2020), 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HM Government A Frost & Sullivan White Paper, Digital Market Overview: Indonesia

ILO(2017), Thailand 4.0 and the Future of Work in the Kingdom

PWC(2018), Global manufacturing and Industrialization Summit, The future of industry: Brazil

Reshoring Initiative(2018), Data Report

Wang Z, Wei S J, Yu X and Zhu K.(2017), “Measures of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 and Global Business Cycles”, NBER Working Paper.

World Bank (2019). Recent patterns of global production and GVC participation.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9.

2020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20-001	2020년 미국 경제·무역·정치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분석	2020.1
20-002	2019년 하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20년 상반기 전망	2020.2
20-003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동향 및 주요국 입장	2020.3
20-004	POST 코로나19 중국 유망 상품, 유망 서비스	2020.4
20-005	글로벌 비관세장벽 동향 2020	2020.5
20-006	코로나19가 바꾸는 세계시장, 세계 주요지역별 시장진출전략	2020.5
20-007	Post 코로나, 일본기업의 원격근무 확산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20.6
20-008	한-인니 CEPA 활용 25대 수출유망상품	2020.6
20-009	코로나19가 바꾼 미국 소비트렌드	2020.6
20-010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 시장동향 및 활용방안	2020.6
20-011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2020.6
20-012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2020.6
20-013	포스트코로나, 러시아 소비시장 양극화와 시사점	2020.6
20-014	브렉시트 이후 EU 변화 및 대응 방향	2020.7
20-015	2020년 상반기 대한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2020.7
20-016	독일 수소경제 현황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	2020.7
20-017	글로벌 기업의 코로나19 대응사례와 포스트 코로나 新전략	2020.7
20-018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대응 방안	2020.7
20-019	북미 에너지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기업 진출전략	2020.8
20-020	일본의 對아프리카 진출전략 변화와 시사점	2020.9
20-021	한러 경제협력과 산업협력 신모델 구축: 화학,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2020.9
20-022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GVC 재편 동향: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	2020.9
20-023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2020.11
20-024	유럽그린딜 추진동향 및 시사점	2020.10
20-025	코로나19 이후 대중수출 변화와 시사점: 제품용도별 품목별 수출 실적 분석	2020.10
20-026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對신남방 진출 유망 서비스산업	2020.10
20-027	2019/20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2020.10
20-028	영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분석 및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2020.12
20-029	북방지역 소국의 발전전략과 협력기회: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2020.12
20-030	폴란드 전기차 배터리 산업 현황 및 진출전략	2020.12
20-031	캐나다 미래형 자동차 개발 현황 및 진출방안	2020.12
20-032	호주의 그린산업 소비 트렌드 및 진출기회	2020.12
20-033	캄보디아 청년들을 사로잡을 맛은 : 캄보디아 음료시장 '맛'케팅	2020.12
20-034	주요국별 CSR 정책 및 현지 CSR 사례집	2020.12
20-035	중국 '14차 5개년 계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0.12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20-036	영-일 CEPA 체결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 및 시사점	2020.12
20-037	캐나다 코로나19 방역용품 시장 동향	2020.12
20-038	코로나19가 아세안 소비시장을 바꾼다	2020.12
20-039	서남아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T) 동향과 시사점	2020.12
20-040	<선전특구 40주년 기획> 중국 선전 경제를 이끄는 힘 - '선전 혁신기업'	2020.12
20-041	Covid-19 속 네덜란드 스마트팜 및 식량안보 동향	2020.12
20-042	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 일자리 정책 동향	2020.12
20-043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비대면 산업 진출전략 : 의료, 물류 유통	2020.12
20-044	코로나19 이후 국제 분업구조 재편과 우리 산업의 경쟁전략	2020.12
20-045	미국 구독경제 시장현황과 활용방안	2020.12

□ KOTRA자료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20-001	Business in Korea 2020	2019.12
20-002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의약·바이오	2019.12
20-003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Medicine·Bio (영문)	2019.12
20-004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Medicine·Bio (중문)	2019.12
20-005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Medicine·Bio (일문)	2019.12
20-00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정보통신(ICT)	2020.1
20-00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ICT)	2020.1
20-008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ICT(중문)	2020.1
20-009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ICT(일문)	2020.1
20-010	한국생활가이드 2020	2020.1
20-011	Living in Korea 2020	2020.1
20-012	대한민국 중소기업 세계와 통하다	2020.1
20-013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패션·뷰티	2020.1
20-014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Fashion & Beauty	2020.1
20-015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時裝与美容	2020.1
20-01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ファッション・ビューティー	2020.1
20-0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반도체·디스플레이	2020.1
20-018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半導體与顯示器	2020.1
20-019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半導體・ディスプレイ	2020.1
20-020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유통·물류	2020.1
20-021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流通与物流	2020.1
20-022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流通・物流	2020.1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20-023	2020 해외시장 진출 유망부진 품목	2020.1
20-024	2020 권역별 진출전략 : 중국	2020.1
20-025	2020 권역별 진출전략 : 일본	2020.1
20-026	2020 권역별 진출전략 : 동남아	2020.1
20-027	2020 권역별 진출전략 : 서남아	2020.1
20-028	2020 권역별 진출전략 : 중동	2020.1
20-029	2020 권역별 진출전략 : 유럽	2020.1
20-030	2020 권역별 진출전략 : CIS	2020.1
20-031	2020 권역별 진출전략 : 북미	2020.1
20-032	2020 권역별 진출전략 : 중남미	2020.1
20-033	2020 권역별 진출전략 : 아프리카	2020.1
20-034 ~ 20-113	2020 국별 진출전략 (80개국)	2020.1
20-114	외국인투자가이드 2020	2020.1
20-115	外国人投資ガイド 2020	2020.1
20-116	外商投資指南 2020	2020.1
20-1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금융	2020.2
20-118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金融(中)	2020.2
20-119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金融(日)	2020.2
20-120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관광	2020.2
20-121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旅游	2020.2
20-122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觀光	2020.2
20-123	함께가자 아프리카로	2020.2
20-124	해외전시가이드 알고가면 성과 UP	2020.2
20-125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항공우주	2020.2
20-12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航空航天	2020.2
20-12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航空宇宙	2020.2
20-128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Semiconductor & Display	2020.2
20-129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Financial Service	2020.2
20-130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Distribution & Logistics	2020.2
20-131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문화콘텐츠	2020.2
20-132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文化内容	2020.2
20-133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文化コンテンツ	2020.2
20-134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식품	2020.2
20-135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食品(中)	2020.2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20-13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食品(日)	2020.2
20-137	2020 외국인투자기업 우수채용사례집	2020.2
20-138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실무 2020	2020.2
20-139	외국인 투자기업 환경정책 2020	2020.2
20-140	2020년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	2020.2
20-141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신재생에너지	2020.2
20-142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新再生能源	2020.2
20-143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新再生可能エネルギー	2020.2
20-144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정밀화학	2020.2
20-145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精細化工(中)	2020.2
20-14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精密化學(日)	2020.2
20-14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자동차부품	2020.2
20-148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汽車配件(中)	2020.2
20-149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自動車部品(日)	2020.2
20-150	미국 지식재산권 이슈 및 사례 : 2019 뉴욕 IP-DESK 발간 뉴스레터 모음	2020.2
20-151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Cultural Content	2020.2
20-152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Toursim&Leisure	2020.2
20-153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기계산업	2020.2
20-154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Machinery	2020.2
20-155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機械(中)	2020.2
20-156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機械産業(日)	2020.2
20-15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조선해양	2020.2
20-158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造船及海洋工程	2020.2
20-159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造船海洋	2020.2
20-160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Aerospace	2020.3
20-161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Renewable Energy	2020.3
20-162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Shipbuilding & Marine	2020.3
20-163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Fine Chemicals	2020.3
20-164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Food & Beverage	2020.3
20-165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 Automotive Parts	2020.3
20-166	2019 IP-DESK 백서	2020.3
20-167	2020 IP-DESK 발간자료집	2020.3
20-168	인도 지식재산권 A to Z : 인도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및 사례	2020.3
20-169	2019 글로벌 CSR 성과보고서	2020.3
20-170	韓國生活ガイド 2020	2020.3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20-171	韓國生活指南 2020	2020.3
20-172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 활용 사례집 2019: 사례별 TIP으로 알아보는 FTA 활용 매뉴얼	2020.4
20-173	Labor Laws in Korea 2020	2020.4
20-174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 2020	2020.4
20-175	KOTRA가 당신에게만 공개하는 수출 비법 : 2020 지사화 우수사례집	2020.5
20-176	중소·중견기업 해외 M&A에서 길을 찾다	2020.5
20-177	GVC 재편에 대응한 인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분석	2020.6
20-178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 활용 Tips	2020.6
20-179	2019년 고용계약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보고	2020.6
20-180	중소·중견기업 해외 M&A에서 길을 찾다 (개정판)	2020.6
20-181	2020년 취업연계형 FTA 실무과정 참고교재 1권	2020.6
20-182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IP-DESK가 도와 드립니다 : IP-DESK 기업지원 우수사례집	2020.6
20-183	2019 K-V FTA Economic Cooperation Work Program: Strengthening K-V Fishery Cooperation by Improving Viet Nam's Aquaculture safety	2020.7
20-184	2019 한-베 통상연계형 경험사업: 베트남 양식수산물 안전성 개선을 통한 한-베 수산경협 강화 사업	2020.7
20-185	2020년 취업연계형 FTA 실무과정 참고교재 2권	2020.7
20-186	글로벌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전략보고서: 중남미	2020.7
20-187	2019 북한 대외무역 동향	2020.7
20-188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	2020.8
20-189	한손에 쏙! 한눈에 쏙! 해외진출 종합 핸드북 2020	2020.8
20-190	2019 외국인투자유치부즈만 연차보고서	2020.9
20-19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9	2020.9
20-192	2020 글로벌 IP 이슈페이퍼	2020.9
20-193	외국인투자상담 FAQ	2020.9
20-194	필리핀 투자실무가이드	2020.10
20-195	Global Green Hub Korea 2020 결과보고서	2020.10
20-196	해외로 나간 청년들, 세계를 JOB다: 2020년 해외 취업 성공 수기집	2020.10
20-197	신북방 유망 4개국 프로젝트 수주지원 가이드 - 몽골,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2020.10
20-198	한-인도 CEPA 활용 및 통관 애로사례집	2020.10
20-199	2020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	2020.10
20-200	2020 해외 사회적경제기업 성공사례	2020.10
20-201	USMCA 원산지 규정 해설서 - 자동차 ·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2020.10
20-202	2021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020.10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20-203	2020 신남방 비즈니스 상담사례집	2020.10
20-204	2020 중동 주요국 스마트 테크 수요와 진출 방안	2020.10
20-205	브라질 투자실무가이드	2020.11
20-206	2020 에듀테크 해외 유망 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2020.11
20-207	온라인 해외 직구·역직구 FTA 활용 Tips	2020.11
20-208	EU-베트남 FTA(EVFTA) 활용 가이드북	2020.11
20-209	2020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상권	2020.11
20-210	2020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중권	2020.11
20-211	2020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하권	2020.11
20-212	2021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상)	2020.11
20-213	2021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하)	2020.11
20-214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가이드	2020.11
20-215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가이드	2020.11
20-216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가이드	2020.11
20-217	몽골 투자실무가이드	2020.11
20-218	2021년 권역별 시장진출 전략 - 2021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20.11
20-219	FAQ on FDI in Korea	2020.11
20-220	중국 상표 방어전	2020.12
20-221	지재권 분쟁 경고장 발송 및 대응 가이드	2020.12
20-222	지재권 세관보호 및 침해 대응 가이드	2020.12
20-223	2020 외국인투자기업 고용실태조사	2020.12
20-225	일본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가이드	2020.12
20-226	독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가이드	2020.12
20-227	소셜미디어와 지식재산권 가이드	2020.12
20-228	태국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2020.12
20-229	베트남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2020.12
20-230	Trademark Guidebook of the Philippines	2020.12
20-231	우리기업이 실수하기 쉬운 중국상표 출원 및 등록 가이드	2020.12
20-232	홍콩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가이드	2020.12
20-233	중국 상표 침해 단속 가이드	2020.12
20-234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2020.12
20-235	해외 지식재산 제도 가이드 1. 아시아	2020.12
20-236	해외 지식재산 제도 가이드 2. 유럽	2020.12
20-237	해외 지식재산 제도 가이드 3. 북미·중남미	2020.12
20-238	해외 지식재산 제도 가이드 4. 중동	2020.12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20-239	해외 지식재산 제도 가이드 5. 아프리카	2020.12
20-240	해외 지식재산 제도 가이드 6. 러시아·CIS·대양주	2020.12
20-241	가우스 상사의 글로벌 통상 이야기	2020.12
20-242	2019년 KOTRA와 함께하는 수출기업화 성공스토리	2020.12
20-243	무공해 자동차 미국 시장 환경 분석 및 진출 전망	2020.12
20-244	2021년 해외시장 진출 유망·부진 품목	2020.12
20-245	미국 지식재산권 이슈 및 사례 : 2020 뉴욕 IP-DESK 발간 뉴스레터 모음	2020.12
20-246	KOREA PAVILION DESIGN GUIDELINE 해외전시 한국관 디자인 가이드	2020.12
20-247	히트상품 속에 숨은 탄소소재를 찾아서	2020.12
20-248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집	2020.12
20-249	디지털 경제의 디지털 일자리	2020.12
20-250	미래자동차 글로벌 가치사슬 동향 및 해외 진출전략	2020.12
20-251	경제외교, 해외 진출 길을 넓히다	2020.12
20-252	인도 위조상품 유통 대응 가이드	2020.12
20-253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코로나19 속 우리기업 해외투자 성공기: 2020년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우수사례집	2020.12
20-254	2021 북미 자동차 시장 진출 가이드	2020.12
20-255	SEOUL FOOD 2020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결과보고서	2020.12
20-256	나만 알고 싶은 28개국 해외취업정보	2020.12
20-257	코로나 19 위기 속, 진출기업 위기대응 가이드	2020.12
20-258	GVC 재편 속,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Relocation 전략	2020.12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20-001	CES 2020 리뷰 설명회	2020.1
20-002	USMCA 주요내용과 영향	2020.7
20-003	한중러 포스트 코로나 경제협력포럼	2020.11
20-004	브렉시트 이후 변화 및 한영 FTA 활용 안내 세미나	2020.11
20-005	MDB Project Plaza 2020: 2020 MDB 프로젝트 플라자	2020.11
20-006	Global Project Plaza 2020: 2020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프로젝트 설명회	2020.11
20-007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 특별포럼	2020.12

□ GTR (Global Trade Report)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20-001	2021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2020.12

2021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21-001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1.1
21-002	2020년 하반기 대한수입규제 동향과 2021년 상반기 전망	2021.1

□ KOTRA자료

번호	제목	번호부여일
21-001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중국	2021.1
21-002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일본	2021.1
21-003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동남아	2021.1
21-004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서남아	2021.1
21-005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중동	2021.1
21-006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유럽	2021.1
21-007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CIS	2021.1
21-008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북미	2021.1
21-009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중남미	2021.1
21-010	2021 권역별 진출전략 : 아프리카	2021.1
21-011 ~ 21-090	2021 국별 진출전략 (80개국)	2021.1
21-091	한-영국 FTA 실무활용 가이드	2021.1

기획 및 감수
KOTRA 경제협력총괄팀

작성자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통상정책실 김재덕 박사

Global Market Report 20-044

코로나19 이후 국제 분업구조 재편과 우리산업의 경쟁전략

발행인 | 권평오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21년 1월 25일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의처 |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4)

ISBN : 979-11-6490-806-6 (95320)

